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2월 21일)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월정사 찾은 IOC…"한국불교 원더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및 관계자를 평창 월정사로 초청, 사찰음식 만찬행사를 열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IOC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청소년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 또한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내영 기자 ·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도정비·문화전승으로 태고종 미래 열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신년기자회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태고종의 슬로건을 '미래를 열다, 조화와 화평의 세상'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희망과 도약의 마음을 담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이 슬로건에 맞춰 종책과 불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은 1월 24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종책과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종책 사업 시스템 구축 △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 △국제교류사업 확대 △전법교화 및 사회구호활동 전개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 등을 종책 과제로 제시했다. 내부로는 제도를 정비해 종단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 활용과 국제사업 전개로 종단 외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진 스님은 "과거 태고종은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종책을 펼치다 보니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단절과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 모든 종책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각 분야마다 제도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헌종법의 상호 충돌과 모순점 등을 중앙종회의 협조를 얻어 정비하고 조례와 규칙, 시행령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상진 스님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정착된다면 소납이 총무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더라도 후임자가 그 시스템에 의해 모든 종단사업을 단절없이 계승해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발전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 신설된 교육원과 태고문화유산전승사업단을 통해서는 승려교육과 문화유산 발굴을 추진한다. 그간 태고종은 종도교육을 총무원 교무부에서 실시해왔으나, 교육원이 신설됨에 따라 종도교육 전반을 교육원이 담당하게 됐다.

태고문화유산전승사업단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단 전문기구로서 향후 글로벌 시대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발굴,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정말 많은 유·무형문화유산들이 있지만, 이를 활용한 국고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다. 총무원장 당선 후 살펴보니 종단협 부회장 종단들의 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태고종 유·무형문화유산들을 일제조사해 현대적 전승 방안을 마련하고 종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기응변식 종단 운영 종식" 선언
제도 정비 통한 운영시스템 구축
종단 유무형유산 일제조사 추진
국제활동, 불사로 종단 외연 확대
"군승 파견 추진…군포교 나설 것"

이를 위해 상진 스님은 △용궁사 인천국제명상문화체험 전승관 건립불사 △태고종 유·무형문화재 정밀조사 △태고종 영산재 해외 공연 등을 추진하며, 대정부 문화 정책으로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진 스님은 적극적인 전법 교화 활동도 예고했다. 특히, 육해공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군포교를 전개할 뜻을 밝혔다.

상진 스님은 "현재 군승 파송은 조계종 위주로 이뤄지는 중이지만, 현재 군승 부족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태고종도 군승으로 나아가고 싶은 인재들이 많다"며 "태고종도 군포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승 참여를 요청하고 군승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진 스님은 종단 차원의 국제행사와 불사 등을 통해 태고종의 위상을 강화하고 외연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스님은 "태고종단이 과거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에 국한됐는데 국제적으로 종단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한 예로 올해 태고종은 중국불교계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이는 태고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종단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한중불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조 태고 보우 국사를 선양하기 위해 태고문화축제를 확대하고, '태고문학예술상'을 제정해 불교의 평화와 화합정신을 담고 있는 작품을 시상한다는 게 상진 스님의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다종교·다문화 시대, 태고종은 계층과 세대 간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와 화합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전법교화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임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부산불교 발전" 당부



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에 정오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지난 22일 임회를 거쳐 주지후보로 추천된 정오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금정총림 범어사는 부산불교의 중심이 되는 사찰이다. 부산지역 불자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신경 써달라"며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 화합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오 스님은 "방장스님과 문중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과 소통하면서 부산불교가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며 "종단 숙원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한국불교 중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답했다.

정오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했다. 극락암 호국선원, 서운암 무위선원 등에서 10안거 이상 성만했다.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내고 부산 가야사, 장안사, 고불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본지-생명나눔 공동기획 업무협약

창립 30돌 양 기관 '생명나눔운동 확산' 다짐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대종사(사진 오른쪽)와 본지 대표이사 혜도 스님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혜도 스님)이 1월 23일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사무실에서 '생명나눔운동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양 기관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불교신문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 사업을 연간 기획특집으로 보도한다. 양 기관은 지난해에도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난해 업무협약이 생명나눔 운동 확산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하면서 올해에도 서로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 30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올해 역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혜도 스님은 "신문사는 지난 몇 년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며 "모든 생명을 살린다는 부처님 가르침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전형일정 | 2024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4년 3월 첫째주 3월 4일 (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향 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종도교육·생활불교 실현 힘쓰라”

태고종, 종정예하 신년하례회
서대문 백련사서 200명 참석
운경 종정예하, 상진 스님에게
묵담 스님 ‘육화경’ 휘호 전달
종단 유공자들에 공로패 수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년법어 후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이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묵담 스님의 친필 휘호를 전달하고 있다.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이 2024년 갑진년을 맞는 태고종도들에게 종도교육 증진과 생활불교 구현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22일 서울 백련사 무량수전에서 ‘갑진년 종정예하 배알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종정예하 운경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김영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 법회는 선조사스님들에 대한 묵념과 종정예하 신년하례, 참석스님 간상호 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운경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중생이 이고득락에 이를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우리는 열린 문으로 나갈 줄 모르고 잠기고 닫혀 있는 문으로 나가려고만 한다. 백년 천년을 잠긴 문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영원히 나갈 수 없다”면서 “모든 중생이 바른 길로,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듯이 우리 종단도 한때 나락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지적한 운경 스님은 “전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종단 안정화에 기여했고,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종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저도 총무원장스님과 여러 종단 어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운경 스님은 종단이 나아갈 방향으로 종도들의 교육 증진과 생활불교 구현을 제시했다. 스님은 “현재 종단의 교육은 매우 부족하다. 교육이 수행이고, 수행이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행과 교육을 해야 한다”며 “지역단위로 교육을 진행하되, 관장을 총무원에서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제언했다.

이어 “태고종 종헌종법에 ‘생활불교’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종단 의식집 단일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운경 스님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태고종 종정을 지낸 묵담 스님의 〈육화경〉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육화경〉은 불교 교단의 화합을 위해 정한 6가지 계율을 의미한다. 묵담 스님의 휘호에는 육화경의 여섯 계율과 ‘승단총화정진(僧團總和精進)’이 쓰여 있다. 운경 스님은 “50년 전 묵담 스님이 종단에 내린 글씨인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종단을 화합·발전시킬 총무원장스님이 오셨으니 이 휘호를 전하려 한다”고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태고종이 불교와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종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모든 종단은 이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교화종단이 돼야 한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옛 선조사스님들께서 해오신대로 지극 정성으로 정진한 기도의 원력으로 국운융창을 이끄는 종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경 스님은 염불사 주지 호명 스님,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 열린선원 법현 스님 등 종단 발전에 기여한 스님과 사찰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 개정

전통사찰법 개정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이용호·김윤덕)’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로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토지 면적, 경계선, 지목 등을 그대로 사용해오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게 조계종 입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사찰 경내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종교용지’로 설정된 경내지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찰 전각 등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돼 전통사찰 보전과 활용에도 제한을 받았다.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문체부와 정부부처, 국회 정각회 등 여야 국회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많은 전통사찰들이 수행과 포교, 불교문화유산의 전승과 같은 고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진우 스님, 대통령실에 ‘민생안정’ 당부

성태윤 정책실장 예방서
명상 보급 중요성도 강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황성운 문화체육비서관의 예방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경제와 민생안정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황성운 문화체육비서관이 배석했다.

진우 스님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며 “정치·사회적 어려움이 많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정재계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실장은 “스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황성운 비서관에게 불교유산 문제를 설명하고 불교계와 정부 부처 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국내 문화유산 중 불교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함에도 불교유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사찰들이 해방 이후에 지목변경이 안돼 불법건축물이 돼버린 경우가 많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황 비서관은 “실무진과 잘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또 명상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 명상을 현대화해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양주 석굴암, ‘천년을 세우다’ 정성 전달

1월 22일 기금 2000만원

양주 석굴암(주지 도일 스님)이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정성을 보탰다. 석굴암 주지 도일 스님은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성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 청룡의 힘을 받아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빨리 입불될 거라 생각하는데 양주 석굴암에서 힘을 보태 예정보다 더 빠르게 바로 모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일 스님은 “그동안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이번 ‘108용 전시회’를 통해 작게나마 종단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도일 스님은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서울 종로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청룡의 해 108용 특별 전시회’의 수익금을 ‘천년을 세우다’ 불사와 자비나눔으로 회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우 수습기자

齋(재) 의식의 변화 鞋(소형 연)
종이연, 종이용선, 대체용
•태워서 환경오염시킴 없이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
•정교한 조각, 화려한 휘장 금단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원번호 30-2022-0052348
출원번호 030-0949904
가볍습니다 4kg
금단청연
적단청연
규격 W45cm x H65cm 가격 ₩150만원
위패나 사진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서랍식으로 제작됨
포교당 사용
양손잡이가 부착되어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배에 부착하여 편하게 받들 수 있습니다.
대형 연
영단의 장엄
40여년의 외 길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공단자수 (번)幡
번의 종류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시왕번
•칠여래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010-8441-6814

범해 스님 "출가 장려 사업 강화 · 확대"

조계종 교육원, 신년간담회서 주요사업 밝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우리 종단은 시대 흐름에 따라 종교인·출가자 감소로 승가, 재가, 사찰, 종단의 활로를 열어가야 하는 숙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교육원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가자 수 확대와 질 높은 승가 교육을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범해 스님·사진)은 출가 진흥에 역점을 둔 종책 사업을 펼친다. 출가지도법사 현장 출가상담 확대, 출가상담사 스님 발굴 및 지원, 종단 전반의 출가 교육, 승가교육 질적 향상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출가자 수 증대에 진력할 계획이다.

제10대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2568(2024)년 종책기조와 주요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종책은 전 교육원 집행부가 구축한 출가 및 교육 종책을 기반으로 세밀하고 체계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활동 역량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가자 감소에 대응방안 제시
현장 출가상담 인력 발굴·지원
승가교육 질적 향상에도 노력

"출가와 승가교육이 종단의 백년대계"라고 천명한 범해 스님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씩 개선해 올바른 정법의 지혜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제10대 교육원은 종단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출가장려 사업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콘셉트의 출가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출가지도법사를 발굴·지원한다. 본사별로 출가지도법사를 둬 행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단의 출가 종책을 발빠르게 현장에 실현해 발심출가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를 위해 종단 군법사·교법사·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출가상담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포교원과 협업해 종립학교, 대학생, 군장병 등 청년들이 밀접한 곳을 찾아 출가상담을 진행하고 출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다. 각 사찰에서 출가 관련 사업 및 홍보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하는 등 출가와 관련된 각종 규정도 재정비한다.

범해 스님은 "지난해 현장 출가 홍보와 상담을 시행하는 등 종단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2022년도 61명이었던 출가자 수가 2023년도에 84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해마다 조금씩 출가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출가 장려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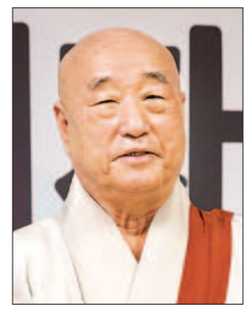
교육원은 학인 수 감소로 교육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승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출가자 감소는 학인 수 감소와 상주교수 감소로 이어져 승가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교육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기본교육기관 설립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기관 대상의 연구프로젝트 지원, 상주교수 학술 세미나 개최, 학인 수행프로그램 개발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승가공동체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원은 동국대, 승가대학, 승가대학원, 특수대학 등 조계종 소속 한인의 인재양성을 비롯해 교육교역자 스님의 연구 및 교육기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범해 스님은 "교육원 존재의 이유는 출가자 확대에 있다. 출가는 승가의 기반이며, 교육과 교재 편찬은 불교의 미래이고 연수는 전법포교의 꽃"이라며 "제10대 교육원은 백 년을 인욕해 선정과 지혜의 날개로 승천하는 푸른 용의 기상과 같은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생명나눔, '글로벌' 의약지원 나선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비롯해
의료비 지원 등 국내 넘어
불교국가에 자비 손길 건네
10월 중 창립 30주년 행사



1994년부터 현재까지 8만명에 달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접수한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불교국가를 위한 의약품 지원사업에 나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사진)는 1월 23일 서울 견지동 법인사무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사업 실적과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사업으로는 국내가 아닌 국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해외 의약품 지원 연대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은 2021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글로벌생명나눔과 함께하는 것으로,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저개발국가에 의료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구호 NGO다.

생명나눔 법인 이사장 일면 스님은 "법인 활동이 국내 사업에 머물러 있어서 불교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생명나눔과 뜻을 모았다"며 "잠정적으로는 오는 5월 1차로 캄보디아에 의약품을 지원하려 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의약품 배송비를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동국대 측 학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기념식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취약계층 환자치료비 지원 등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단체로 발전하도록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선업 스님 '전법 · 포교 원년의 해' 선언

조계종 포교원,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 개최

전법 GO를 목표로 출범한 제9대 조계종 포교원이 2024년을 '미래 전법 포교 원년의 해'로 삼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역량 결집에 진력한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사진)은 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년대학생 포교 활성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 '포교 원력 결집 법회' 등 전법 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원 별원 30주년을 맞아 제9대 포교원은 지난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전법 포교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포교 현장을 더욱 활기차게 준비하겠다"며 "부처님 법을 행하고, 전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11일 전법의 날 제정
'부처님 법 전합시다' 원력으로
청년 포교 지원 방향 구체화도

포교원은 종단 미래세대인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한다. 지난해 상월결사와 청년·대학생 포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포교원은 올해 상월결사·군종교구와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청년 포교 지원 방향을 구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포교를 위한 전법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대학생 불자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캠퍼스에서 마음껏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 법당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포교원은 개선이 필요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1년에 4곳, 2022년에 6곳, 2023년에 4곳 대학 법당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한 바 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원력으로 한 포교 원력 결집에도 나선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11월 11일을 전법의 날, 매월 11일을 전법 실천의 날로 각각 제정, 구체적인 전법 실천을 이끈다. 올해 5월 육바라밀이 담긴 '전법 실천 강령'과 '실천 점검표'를 보급해 개개인에게 전법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포교에도 매진한다. 4월~7월 서울, 호남, 영남, 충청 등 권역별 결집대회를 개최해 포교원 산하 조직을 중심으로 결집의 장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예정된 '2024년 대한민국 불교도 결집대회'를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지난해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등이 모여 결집대회의 공식 명칭과 일정을 확정했다. 포교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만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선업 스님은 "탈종교화 시대 오롯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진력한다면 대중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숨 쉴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선언을 마음에 새기며 제9대 포교원과 함께 전법의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제7기 종평위 위촉…위원장에 향문 스님

진우 스님, 1월 25일 임명



조계종 제7기 종교평화위원으로 위촉된 스님들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갈 조계종 제7기 종교평화위원회(종평위)가 구성됐다. 신임 위원장에는 향문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평위 위원장 향문 스님(중앙종회의원)과 위촉직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위원장 향문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현무·법륜 스님과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해 스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이상훈 교수불자회장,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과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이 참여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로, 비교적 종교 간 충돌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가끔 갈등이 있긴 하지만 불교가 앞장서 이웃 종교와 교감하고, 종교 간 평화를 위해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며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종교 간) 조율 잘해서 국민과 국가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 향문 스님은 "오랜 기간 종평위가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놓치고 있는 현안들이 많다"며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종교 간 갈등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24년도 제7기 수강생 모집 中

佛敎 天文學 강좌

《율장》〈대품〉 1 : 7 - 석가모니께서는 초전법륜 시 "야사"에게
보시와 지계 그리고 天上(天文)에 대해 가르침으로 6번째 아라한과를 이루게 하였다.

신 청 방 법 : 현재(6기)교육 청강 후 등록
교육 청강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2월 한)
교육 신청자격 : 승려 및 전법사, 사찰운영 직접 관계자
청강 교육장소 : 수원시 장안로 418-15(수도사)
문 의 : 010-4317-9500

하늘 맘 알기 (불교천문학 강원)

“영감 원천은 불교…‘노량’에도 불교 담았죠”

인터뷰 | 영화 ‘노량’ 김한민 감독

“치열한 100분 해전을 통해
완전한 항복 담아내려했다”
파계 무릅쓴 義僧 재조명돼야
원경 스님과 20년 동안 인연
‘관월’ 법명… 평소 관음기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23일 서울 북한산 심곡암에서 만난 김한민 감독(사진 오른쪽)이 주지 원경 스님과 함께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한국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는 현재까지 총 13편이 확인된다. 이 중 김한민 영화감독이 선보인 이순신 3부작 〈명량(2014)〉 〈한산: 용의 출현(2022)〉 〈노량: 죽음의 바다(2023)〉는 이전의 이순신 주제 영화, 드라마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이전의 작품들이 주로 임진왜란이나 이순신 일대기를 다룬다면, 김한민 감독의 3부작은 명량해전·한산도대첩·노량해전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면면을 조명해냈다. 해전을 통해 인물을 조명하다보니 전투 장면이나 인물묘사들이 더 촘촘하고 입체적이다.

그랬기에 〈명량〉은 1700만 명 관객 동원이라는 레전드급 흥행을 기록했으며, 코로나 시국에 개봉한 〈한산〉도 727만 명을 스크린으로 불러모았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노량〉은 1월 25일 현재까지 452만 명을 동원했다.

1월 23일 서울 북한산 심곡암을 찾은 김한민 감독을 만났다. 영화 홍보로 바쁜 김한민 감독이 심곡암을 방문한 이유는 주지 원경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김한민 감독과 원경 스님은 20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막역한 사이다. 독실한 신심을 가진 김한민 감독은 원경 스님에게 ‘관월(觀月)’이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원경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달에 비교한다. 김 감독이 진리를 향하는 구도심으로 영화를 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 ‘관월’이라는 법명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한민 감독은 “영화감독 데뷔 전 여러 부침을 겪고 있을 때 원경 스님과 인연이 됐다. 좌선대에 올라 참선하고, 심곡암에서 시나리오 작업도 했다”며 “조계사에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했고, 화계사불교대학을 다녔다. 요즘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관음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당히 불연(佛緣)을 밝히는 만큼 김한민 감독은 자신의 작품 기저에는 ‘불교’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명량〉에서 이순신(최민식 분) 장군이 죽어가는 장병들을 바라보며 “이 쌓인 원한을 어이할꼬”하는 장면이나, 〈노량〉의 이순신(김윤식 분)이 외치는 “더 큰 원한을 막아야 한다” “저들을 이대로 보내면 더 큰 원한이 쌓이게 될 것”이라는 대사가 그렇다.

김한민 감독은 “영화에서 ‘원한’은 복수나 혐오의 감정이 아니다. ‘원한’ 자체를 걱정하는 이순신 장군의 포용력을 담아내려 했다”며 “호국불교에서 보이듯 ‘호국’의 개념은 단순히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런 불교적 가르침과 개념들을 영화에 녹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물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제의 역사와 사건을 지금의 사람들이 리마인딩하며 소통을 이어갔으면 해서”라며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저의 역사의식과 안목은 불교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순신 3부작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에 대해 김한민 감독은 마지막 작품인 〈노량〉을 꼽았다. “끝까지 쫓아가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순신 장군의 ‘완전한 항복’의 의미를 영화 속에 담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노량해전 전투 장면을 153분 러닝타임 중 100분 가량 할애한 이유도 죽음을 불사한 이순신 장군의 치열함을 묘사하기 위해서다.

김한민 감독은 “이순신 장군의 완전한 항복은 완벽한 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조선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뤄졌으면 일제강점기나 남북분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한민 감독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는 7년 전쟁에서 활약한 의승(義僧)들의 활약도 재조명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영화 〈명량〉과 다큐 〈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해〉에서 의승수군의 활약을 조명한 바 있다.

김한민 감독은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의승군들이 활동한 것은 유례가 없다. 호국불교라는 우리나라 불교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며 “파계를 무릅쓰고 칼과 창 등 병장기를 들었던 승군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3부작을 마무리한 김한민 감독의 다음 주제도 ‘역사’다. 현재 계획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을 무력이 아닌 정치외교전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대한제국기의 이야기도 구상 중이다.

“제가 역사를 다루는 이유는 과오를 되짚고, 이를 바르게 바라봤으면 해서입니다. 영화라는 매개체로 감독은 관객과 첨예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과정을 즐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노량〉도 불자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하.”

“천태종 발전에 새 전기 마련하겠습니다”

김형동 국힘 비대위 비서실장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취임
1월 21일 서울 관문사서 봉행
덕수 스님 “희생 정신 가져라”



천태종 신임 중앙신도회장으로 임명된 김형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국회의원·경북 안동시 예천군·사진)이 취임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월 21일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로원 간사 도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부의장 경천 스님 등 종단스님들을 비롯해 박성중·이헌승 국회의원, 최호정·이종배 서울시의원, 최승용 경기도의원, 전국 지역사찰 신도회장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인간의 마음을 바르고 밝고 풍요롭게 하는 종교, 인간의 생활을 바르고 밝고 풍요롭게 하는 정치는 함께 나아가야 한다. 자비와 지혜, 평등과 자유의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도 임하길 바란다”며 “중앙신도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종단과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훌륭한 중앙신도회장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김형동 신임 중앙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천태종 2대 종정을 지내며 종단의 중흥을 이끈 대충 대종사와의 인연담을 소개한 뒤 “종단의 새로운 신도회를 구성하고, 다시 한 번 종단 발전의 전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하겠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대중, 애국, 호국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바른 국가관을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하며 중앙신도회장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수시로 관문사를 찾아 신도님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종단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동 회장은 1975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했으며, 해동사 어린이회와 청년회에서 활동한 천태불자다. 2002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북 안동시 예천군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원내부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강화 전등사, 올해 첫 미래불자 장학금 전달

1월 24일,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1000만원 쾌척… 10명에 전달돼
장학생에 신입생 4명 포함 ‘눈길’
주지 여암스님 “지속 후원” 약속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올해 첫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사진〉

이번 장학생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신입생들이 포함돼 있어 인재불사 원력에 의미를 더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는 1월 24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강화 전등사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 총무국장 지불 스님, 포교국장 남룡 스님과 유변성 종무실장, 신도 20여 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학교 측에서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성정석 대외협력처장과 전등사 장학생 10명, 장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

이날 57회를 맞은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강화지역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특히 장학생 10명 중 4명은 올해 3월 입학이 예정된 신입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불교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대학에 진학할 때 보다 적극적인 신행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에 신입생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동국대 장학제도 중에서도 가장 신의와 권위가 있는 장학금이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인연으로 전등사를 자주 찾고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이번 장학기금 전달식을 계기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여암 스님은 “동국대 ‘지역미래불자 육성 장학’이라는 뜻 깊은 불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 지역사회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여법하게 정진해 나가는 것이 불자들이 퍼져나가는 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학생 청년 포교를 위해 ‘부처님 법 전합시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할인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판매합니다.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2월말까지 행사중입니다.
신제품 인등 신제품 많이 준비 되었습니다. 주문제작 합니다.
수제부적 50장 20,000원씩
(국산)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2024년 신년맞이 행사
안녕하세요. 동호 불교용품 물류센터입니다.
저희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삼베 ,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20개 70,000원
5일초 24개 75,000원
3일초 40개 75,000원
1일초 100개 85,000원
15일초 12개 10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50,000원
15일 70,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중.(기존 불상 가능) ※3자기준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 12,000원)
※천불이상은 11,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 검색 NAVER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
■ 대표번호 : 054-762-8200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 문의전화 : 010-9748-3366
■ 계좌번호 :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봉녕사의 '제1기 여성 출가학교'에는 전국 각지서 모인 11명이 입교했다. 이들은 한 달간 한국불교와 승가 생활 전반을 체험한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 참가자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올곧은 정진을 다짐했다.

11인 행자, 대자유인 향한 한 달 여정 시작하다

수원 봉녕사 제1기 여성 출가학교 고불식 현장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출가학교라는 삶의 쉼표 같은 경험을 통해 오로지 저에게 집중하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금강경, 55)

"사회로 나가기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가학교에서 바른 사유와 생활 습관을 체득해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천하는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향운지, 23)

"무의미하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이 60을 바라보니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운 삶을 삶고 싶었습니다. 출가수행자로 살아볼 기회가 생겨 너무 설레고 환희롭네요."(아녕, 57)

불문(佛門)에 귀의해 출가장부로 나아가는 여정, 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두렵고 힘들다 등등 막연함이 출가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대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수원 봉녕사에서 만난 제1기 여성 출가학교 참가자 금강경·향운지·아녕 행자가 그랬다. "부처님을 만나 위안을 얻어서" "제2의 인생을 만나기 위해"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등 각각 다른 목적으로 봉녕사를 찾았지만, 부처님의 길을 선뜻 따라나선 행자들의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월 2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1기 여성 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 11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제1기 출가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1명이 입교했다. 17세부터 65세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이들 중 3명은 '번뇌초' '무명초'라 일컫는 머리카락을 말끔히 깎은 모습으로 등장해 수행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2월 17일까지 한 달간 한국불교와 승가생활 전반을 체험한다. 일정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빼곡하다. 새벽예불·사시불공·저녁예불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발우공양, 운력 등 일과를 수행한다. 부처님 생애와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수업도 받으며 한국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정해진 일과 외에도 자비도량참법, 불교요가, 용주사 화성행궁 순례, 사찰음식 특강, 불교심리상담 등 봉녕사만의 특별프로그램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특히 1월 29일에는 출가자에 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팔관재계' 수계법회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봉녕사가 출가학교를 기획한 건 출가자 감소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7월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개최한 '출가, 그 문호를 크게 열다' 주제의 학술대회에 참여한 봉녕사 스님들은 출가 장려 방안으로 '출가학교'를 떠올렸다. '출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년 간 출가학교 경험이 있는 평창 월정사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조언을 구했다. 게다가 봉녕사는 봉녕사승가대학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을 바탕으로 전문 교수진들을 갖추고 있어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봉녕사 여성 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과 아녕 · 금강경 · 향운지 참가자.

17~65세 11명 한 달간 출가 체험
1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4주간
교리 · 명상 교육 등…팔관재계 수지
"출가 용기 얻어가는 삶의 전환점"

기대 속 문을 연 첫 여성 출가학교 고불식에는 여성 출가학교장이자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해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봉녕사 여성 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봉녕사승가대학 학감) 등이 참석해 행자들의 흔들림 없는 정진을 기원했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오늘의 성스러운 회상은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온전한 '나'를 만나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발심행자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원력으로 거룩하게 장엄된 회상"이라며 "법계를 가득 채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마음을 열고, 피곤한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보살의 정신으로 모든 중생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하는 구법의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주지 진상 스님은 입재사에서 "수행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 '어떻게'를 채워가는 과정"이라며 "이 우주의 대의왕이신 부처님을 롤 모델로 해서 긍정에너지를 키우고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설계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도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도 수행생활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이 한 생각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씨앗이다"며 "이번 체험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발심한다면 그 발심의 씨앗이 자라는 보리나무는 여러분을 부처님의 무한한 대자유와 이 우주를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부처님이 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11명의 참가자들은 부단한 정진을 다짐하며 발원문을 낭독했다. "저희 출가학교 행자들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거울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성스러운 승가에 귀의하고, 서로 화합하고 존경하며 이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출가학교 행자들은 얻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에 귀의하였으니, 하심하고 인욕하면서 서로 탁마하는 도반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며, 출가행자의 성스러운 이 길을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여성 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도량 내에서 정숙과 질서를 지킬 것 △공양은 남기지 말고 포행 등의 시간에는 조용히 행동할 것 △다른 이의 교육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 출가생활에서 지켜야 할 '청규'를 시달했고,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연 스님에게 장군죽비를 내렸다. 고불식 이후 참가자들은 사찰안내를 통해 사찰의 역사와 의미를 공부했고 석좌교수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본격적인 출가생활에 들어갔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출가학교가 실제 출가로 이어지는 밑바탕이 되길 기대했다. 진상 스님은 "봉녕사에는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이 있어 (출가학교 참가자들이) 현시대에 필요한 계율과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익혀 전하는 실력자로 키울 것"이라며 "이번 출가학교 참가자들 가운데 출가를 원하는 분들도 꽤 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집중 수행으로 실제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주변에도 출가를 권유할 수 있도록 출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감 도연 스님도 "출가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출가학교에서의 좋은 경험을 통해 출가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용기 내길 바란다"며 "꼭 출가가 아니더라도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 불법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봉녕사는 올해 여름 '제2기 여성 출가학교'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 여성 출가학교를 열 계획이다.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및 총무원장 도현성원(용주사)
원로원장 원성(다인사) 원로위원 덕산(회룡사)
중앙종회의장 서암(약천사) 감사원장 지현(유은정사)
호계원장 선혜(은혜사) 사정원장 보원(극락암)
서울교구원장 지연(지연정사) 충북교구원장 무광(대청사)
충남교구원장 삼현(용화사) 부산교구원장 무루지(진불사)
전북교구원장 법향(지장사) 전남교구원장 혜안(유정정사)
경남교구원장 부성(은혼사) 비구니회장 화심(관음사)
법사단회장 금강심(금강사) 법사단부회장 세연(현선사)
극장 아랑(보현정사) 지현(해월신당)
정수(청암사) 영매(영영당)
유경(별궁) 나혜(매화신당)
도희(수성신당) 동인(백천정사)

대광불교 조계종에서 종도님 모집합니다.
스님 법사님 등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총무원 :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634-19 전화 055-391-0413 팩스 055-391-5592

부산광역시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 운영 이사장 심산스님

회 장 차정연
수석부회장 이석래
부 회 장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윤기선, 윤유점, 우아지, 이순선, 최선희, 보혜스님
감 사 차달숙, 박선옥
편집주간 양원식
편집국장 이소정
편집위원 윤기선, 염계자, 권명해, 홍종원,
편집기자 최인숙
사무국장 채경자
사무차장 이장옥
재무국장 이형주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대학생 전법 '영남결사' 불자로 거듭나

통도사 연합 템플스테이 비롯
수계법회로 삼귀의·오계 수지
영남 11개 대학서 74명 동참

이도경 부산지사장


'영남결사' 템플스테이에 함께한 대학생들과 스님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데 여념이 없다.

"오늘 저희 대학생불자들이 1박 2일간의 영남결사 템플스테이와 수계식을 봉행하오니 지혜의 검과 자비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게 하소서."

유솜이 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장의 전법에 대한 간절한 발원이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 울려 퍼졌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월 20~21일 경내에서 '대학생 전법 영남결사 템플스테이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경상권 대학 불교동아리 연합인 '영남결사'의 4번째 템플스테이 행사인 이번 모임에는 경상국립대·진주교대·부산대·동아대·경남대·창원대·대동대·경북대·영산대·울산대·중앙대 등 총 11개 대학 7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 중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동참한 것.

행사 첫날 고불식에서는 △경과보고 △축사 △발원문 △주지스님 환영사에 이어 사물 관람과 스님과의 차담이 진행됐다. 이어진 둘째 날은 △새벽예불 △수계식 △사리탑 참배 △주지스님 덕담 및 선물 전달 △소원지 쓰기가 있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종교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 생명에게 행복과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미래의 주인공들을 모셨는데 불교가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누구인가를 참구하고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 자신과 사회, 국가를 두루 밝힐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불보종찰인 통도사에서 템플스테이와 수계식을 하는 게 큰 영광이다. 앞으로 불교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하자"고 축사했다.

고불식을 마친 학생들은 방사를 배정받고 사물을 관람했다. 이후 각자의 고민거리와 불교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으며 스님의 지혜를 듣는 스님과의 차담 시간이 이어졌다. 둘째 날은 영축총림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사, 율감 정본 스님이 인례를 맡은 가운데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발원하는 수계식이 봉행됐다.

덕문 스님은 수계 법어에서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아 지니며 여러분에게는 계체가 형성됐다"며 "우리 모두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지닌 금수저 중의 금수저라는 진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회향식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불자로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날"이라며 "통도사에서 보낸 시간이 대학생활을 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김용진 경상국립대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는 "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이곳에서 수행과 전법에 힘쓰신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 모든 불자들이 의기투합하면 대학생 전법도 지금보다 훨씬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법 의지를 밝혔다.

통도사 측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대학별로 인근 사찰 스님과 대학 불자교수를 지도법사로 선정해 불교학생회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동국대 생활풍수CEO 총동문회 현장답사

선운사 등 호남 명당들 답사
"현대 맞는 풍수학으로 발전"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회장 도심 스님)가 현장학습을 진행했다.〈사진〉

1월 21일 전북 고창 선운사와 고창군 부안면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학습에는 동문회장 도심 스님, 재홍 스님, 박시익 학술연구원장, 지영학 교수, 이종헌 교수, 김만희 교수 등 동문회원 55명이 참석했다. 현장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새해를 맞아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는 자리가 됐다.

현장답사는 고창 선운사와 고창군 부안면 김요협 선산, 정읍 미타사를 답사하고 양택풍수와 음택풍수 이론을 점검하며 답사지와 풍수이론의 부합 과정 등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읍 미타사에서는 담당 교수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또 경담 스님과 보현스님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도심 스님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여러 회원이 참여하는 답사를 하지 못하다가 새해를 맞아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현장답사를 기획했다"며 "특히 고창의 명찰인 선운사와 인촌 김성수의 증조부인 김요협 선산을 답사하는 등 호남지역 양택풍수와 음택풍수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다양한 현장답사를 통해 풍수학을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며 "예전의 풍수지리에서 벗어나 현대사회 발전 속도에 걸맞은 풍수학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답사를 주관한 지영학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풍수는 자연을 대상으로 부모가 후손에게 더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려는 2000년을 이어온 통계학"이라며 "명당 터라고 알려진 곳의 현장답사를 통해 회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읍 미타사 경오 스님은 "동문회의 호남지역 현장답사가 없어 이번 기회에 고창과 정읍의 명당 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호남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가 계속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개별적인 현장답사 위주로 진행해온 동문회는 앞으로 격월로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산 등 음택풍수는 물론 풍수이론에 맞는 건물의 신축, 가구 배치 등을 다루는 인테리어 풍수 등 현대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풍수이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는 430여 명의 회원이 속해 있으며 건축, 부동산, 한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성·실력 갖춘 인재양성 노력"

불교종립 정광고 새 교장에
교법사 출신 영일 스님 취임



"끌려가지 않고 찾아가는 학교, 찾아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좋은 인성과 실력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2일 불교종립 정광고교 제17대 교장으로 취임한 영일 스님〈사진〉의 취임 일성이다.

영일 스님은 지난 2002년 교법사로 부임한 이후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불교를 전했으며, 정광고교 역대 3번째 '스님' 교장이다. 영일 스님은 "역대 교장선생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건학이념에 맞게 행복한 분위기에서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일 스님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스터디카페(독서실)'를 추가로 건설해 면학 분위기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040명의 재학생 중 방과 후 공부를 원하는 4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현재의 240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120여 석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영일 스님은 학교 불교회 활동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불교어머니회의 활성화와 학교 내 설치된 법당에서 기도법회와 불교 성지순례, 불교동아리 활동지원이 그 예다.

영일 스님은 "교법사 시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감화를 주기 위해 늘 수행자의 마음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불교와 스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할"이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학교생활 20년을 회향하는 마음으로 교법사가 아닌 교장으로서 지역 내 최고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불교, 새해 지역·불교발전 기원

울산불교연합회 · 신도회 등
300여 명 신년인사회 봉행



울산불교종단연합회와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영수)는 1월 24일 해남사 보광당에서 지역 스님과 각급 기관장,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사진〉 신년인사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울산불교계가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신년사에서 "어두운 곳에 진리의 빛, 태양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춰 세상을 밝히자"며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이 문화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새해에는 울산시민 모두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불교인 모두가 뜻을 모아 더 나은 울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 불교계의 성원과 용의 해 기운을 받아 울산이 승천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며 "올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다툼이 없고 편 가름이 없고, 울산이 평온하고 더 크게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정관암 대활 스님, 옥천암 문성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정지심인당 정일 정사, 성불사 혜안 스님, 화봉선원 기탁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 바라밀선원 주형 스님, 보덕사 효암 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신흥사 인경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이병호 전 울산불교신도회장, 김기현·이채익·박성민·서범수·권명호 국회의원, 이진용 울산BBS 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설 명절 앞두고 '자비의 쌀' 나눔

정읍 일광사, 백미 100포 市에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 스님)와 일광사 연꽃신도봉사회(회장 유상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봉사회 불자들은 1월 25일 정읍시청을 방문해 '자비의 쌀' 100포를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승천 스님을 비롯해 일광사 총무 정인 스님, 군산 광법사 주지 명각 스님, 염불사 주지 혜윤 스님, 군산 도안사 주지 명현 스님, 명효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정인택 대불청 중앙위원,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참석했다.

승천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일광사와 신도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로 이웃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베풀어주시는 승천 스님과 연꽃신도회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자비의 쌀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승천 스님은 지난 1985년 일광사에 주지로 부임한 후 신도회를 활성화하고 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마하연승가회를 통해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지원사업 등 해외구호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재소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34년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야문화원 이사장 혜수 스님 취임

1월 19일 이 · 취임법회 봉행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은 1월 19일 문화원 법당에서 제7대 이사장 성남 스님과 8대 이사장 혜수 스님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이사장에 취임하는 혜수 스님의 헌다에 이어 가릉빈가합창단과 보현합창단의 축가, 은하사 조실 대성 스님의 특별법문이 진행됐다.

대성 스님은 법문에서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났거늘, 부처님의 참된 도리를 알지 못하고 서산에 일락 하듯이 떠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이 하나를 건지고 가자는 것이 불교의 도리고, 부처님의 은지"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는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려우니 마음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8대 이사장 혜수 스님은 "전임 이사장스님들의 노력으로 가야불교문화원을 반석에 올려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가야불교문화원과 김해불교사암연합회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인사했다.

7대 이사장 성남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김해사암연합회가 출범하고 가야불교문화원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혜수 스님을 도와 문화원이 더욱 발전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혜수 스님은 임기 중 가야불교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성남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김해에 불교가 한반도 최초로 전해졌다는 것은 그동안 스님들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님들의 가르침을 청해 듣고 시민들을 위한 불교계의 사업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취임법회에는 신임 이사장 은하사 주지 혜수 스님, 전 이사장 성남 스님, 은하사 조실 대성 스님, 사무국장 송하 스님, 해광사 범해 스님, 묵암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사암聯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

1월 18일부터 5일간 정진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가 제10회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를 봉행했다.〈사진〉

울산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울산불교신도회를 비롯한 신행단체가 주관하는 제10회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는 1월 18일부터 울산KBS홀에서 5일간의 정진을 이어갔다. 법회에는 울산불교연합회회장 해남사 혜원 스님, 백양사 지선 스님, 옥천암 문성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석남사 천조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법륜사 남수 스님, 보덕사 효암 스님, 신흥사 인경 스님, 낙서암 진원 스님, 지장정사 현우 스님, 화봉선원 기탁 스님과 서동욱 남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자비도량참법기도는 나의 잘못과 남의 잘못을 모두 내 허물로 삼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을 나의 허물로 삼아 기도하는 정신"이라며 "발심하기 전에 중생으로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자비도량참법기도 정진으로 성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도량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시작했다. 울산불교계의 숙원사업인 태화문화센터 건립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며 공덕을 이웃에 회향하고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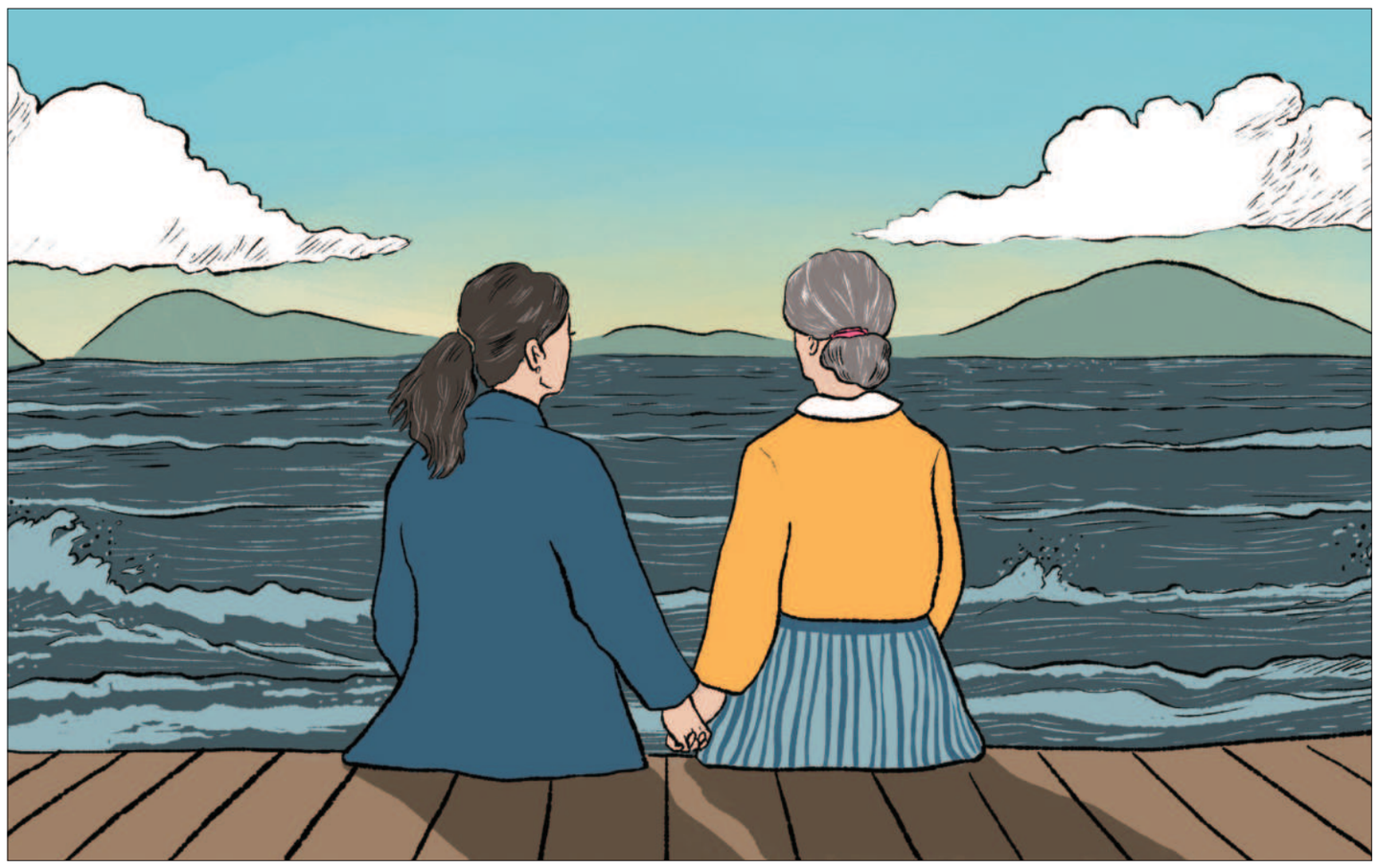
조계종 화쟁위원회

2023 갈등해결 성공사례 수기

② 미래본부 사무총장상
최○○ 씨

성품이 차분한 작은며느리와 명절음식 준비하며 생긴 갈등 잊으려 노력해도 계속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딱딱하게 대해

유튜브 통해 화쟁사상 접하고 갈등 자체엔 문제없다고 느껴 며느리 입장도 어느새 이해돼 함께 생각 나누며 관계도 회복



그림·김상규

우리집 작은며느리는 성품이 바르고 참한 사람이다. 성격이 활달하고 급한 나와 달리, 며느리는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정을 지녔다. 나는 며느리와 도란도란 어울리며 좋은 고부사이로 지내고 싶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나의 바람대로 며느리 역시 내게 살갑게 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명절날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와 작은 갈등이 생긴 후부터 조금씩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음식을 만드는 며느리를 보고 우리집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면서 내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일을 진행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따르지 않고 요즘 세상을 운운하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자, 시어머니인 내 말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아 불쾌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렇지만 구태여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에게 불편한 내색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시어머니가 알려주면 그냥 알았다고 말하고 따르면 될 텐데"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 후 나는 불쾌했던 감정을 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조금씩 더 커져갔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자,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굉장히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때 그냥 따르라고 했던 나의 말 때문인지, 아니면 변해버린 내 태도 때문인지 며느리 역시 나를 데면데면하게 대하고 거리를 둔다는 것이 느껴졌다.

한번은 아들이 나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에 혹시 며느리와 무슨 갈등이 있었느냐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들어 부쩍 사이가 소원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새아기와 나 사이에 싸울 일이 뭐가 있어~"라고 말하며 갈등을 숨겼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나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어서였다.

얼마 후 유튜브로 불교방송을 보다가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불교법문은 소통과 갈등해결에 대한 나의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원효 스님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끊임없이 각축하고 항쟁하는 갈등의 시대에 화쟁사상을 내세워 사회통합을 꾀한 분이다. 화쟁사상은 다툼을 화해로 바꾸는 지혜이며, 다양한 관점과 열린 자세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순과 대립을 푸는 대화합의 정신이다.

원효 스님은 화쟁의 논리를 사물에 비유하여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말하지만, 원효 스님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대립과 논쟁을 포용해 화합을 하자고 강조했다. 화쟁사상은 단순한 화해이론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모아놓음으로써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소통이론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불자로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화쟁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 이번만큼 내 가슴속에 깊이 와닿은 적이 없었다.

나는 화쟁에 관한 불교법문을 접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들을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었다.

첫째,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피를 나눈 부모와 형제 사이에도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무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갈등을 숨기거나 모른 척 넘기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서 푸는 것이 더 중요했다.

둘째, 며느리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화쟁사상은 '하나이지만 모든 다른 것이고, 다르지만 모두가 같다'라는 가르침을 내게 전해주었다. 나는 우리집에서 오랜 시간 고수해온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다. 며느리의 생각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나와 생각이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며느리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갈등 관계에서만큼은 시시비비적 관점이 옳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의 말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건 더욱더 설득력이 부족했다.

셋째, 감정을 분리해서 다뤄야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먼저 감정을 분리해 놓아야 소통도 하고 갈등도 해소할 수가 있는 법이다.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 며느리와의 갈등이 우리의 관계를 뿌리째 흔들어놓고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화쟁사상 안에 들어 있었다. 화쟁을 공부한 후 소통의 방법을 깨달은 나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화쟁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마음먹었다.

그 첫 번째가 갈등의 당사자인 며느리를 갈등의 해결자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한 감정과 갈등을 풀기 위해 직접 며느리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일단 명절 때의 일로 서먹해진 사이를 풀고 싶다고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생각과 감정을 들었다. 얘기를 찬찬히 듣고 보니 화쟁에서 말한 대로 며느리의 방식도 틀린 것이 아니었다.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눈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며느리의 생각과 방식을 인정하고 나니 감정이 한결 후련해졌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하는 방식을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했던 걸 사과했다. 그러자 며느리도 자신의 태도가 윗사람 입장에선 무례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몰랐었다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사이에 서먹하고 불편했던 감정은 이미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난 후였다.

나와 며느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감에 있어 자신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고수하는 대신, 함께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화쟁은 누구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지는 것이 아닌, 너와 내가 함께 이기는 길이었다. 그 후 나와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대화를 하며 생각과 마음을 나누었다. 또한 섭섭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들 때면 속에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게 되었다. 며느리와 만나 솔직하게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소통하고 지내는 일은 내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화쟁을 실천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와 회통의 길을 열 수 있다. 화쟁사상은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성격과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화쟁위원회가 공모한 수기는 개인적인 갈등 상황이 담겨있어 익명으로 게재합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주요일정 백두산 천지(온천욕)+돈화 정각사



일본
■ 지역별 상품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 동 참 금 문의



중국 4대 불산
■ 지역별 상품 – 운강석굴/오대산 5일
– 구화산/황산 5일
– 무석/보타낙가산 5일
– 아미산/낙산대불 5일
■ 동참금 문의



인도 11일
목/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
–바이샬리–쿠시나가르
–룸비니–스라바스티
–아그라–델리
■ 동 참 금 문의



스리랑카 8일
월/수 출발가능
■ 주요일정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
–시기리야–폴론나루와
–담불라–캔디 불치사
–콜롬보
■ 동 참 금 문의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화/금/토 출발가능
■ 주요일정
자카르타–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 동 참 금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천년고찰 최연소 한일 혼혈 주지스님 '화제'

日 '다이니치지' 주지 오구리 코묘 스님

박영빈 객원기자

시코쿠 순례길 중 13번 사찰
어머니 묘선 스님 이어 취임
외국인 안내 등 다양한 시도
지역사회서도 기대·호응 커

'시코쿠 88개소 순례' 가운데 13번 사찰인 '다이니치지(大日寺)'. 그곳에 새로 취임한 젊은 주지스님의 내력이 화제다. 1월 19일 일본 'JRT 시코쿠 방송'은 시코쿠 순례 사찰 중 최연소 주지이자 한일 혼혈인 오구리 코묘 스님의 이야기를 특별보도했다.

'시코쿠 88개소 순례'는 일본 시코쿠 섬을 일주하는 불교 성지순례길로, 1200㎞에 달한다. 통칭 '오헨로'라고 불리는 이 길은 12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번 사찰인 '다이니치지'는 사상 첫 외국인 주지스님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제는 최연소 한일 혼혈의 주지스님을 맞이해 일본 불교계와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이니치지는 815년 일본 진언종의 종조이자 시코쿠 순례길의 개조인 코보대사(弘法大師)가 직접 개산한 사찰이다. 여러 차례 소실과 재건을 거듭해 17세기 중반, 지금과 같은 사격을 갖추게 됐다.

코묘 스님은 "17년 전 주지이자 아버지인 코에이 스님이 갑자기 입적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다. 어머니와 내가 사찰의 명맥을 이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코묘 스님의 어머니이자 전대 주지였던 김묘선 스님은 "코에이 스님이 입적 직전 (나와 코묘 스님에게) 출가해 스님의 자격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스님이 입적 직후 우리 모자가 함께 교토의 다이가쿠지(大覚寺)에 입산출가했다"고 말했다.

묘선 스님은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인 승무의 전수자이다. 스님은 "당시 어린 코묘 스님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스님이 될 테니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힘내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결의를 다지고 절을 지켰다"고 전했다. 묘선 스님은 2008년 시코쿠 88개소 사상 최초로 외국 국적 주지로 취임했다. 당시 코묘 스님은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까지 유학을 마쳤다. 코묘 스님은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고찰의 주지로서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학의 계기를 전했다.



한일혼혈, 최연소 주지로 취임한 오구리 코묘 스님. 사진출처=JRT 시코쿠 방송 화면 캡쳐

코묘 스님은 3년 전 귀국해 진언종의 총본산인 고야산에서 수행을 마치고 어머니인 묘선 스님의 뒤를 이어 새로운 주지로 취임했다. 스님은 "주변 분들과 나이 차가 크고, 동년배가 거의 없어 대화나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컸다"며 처음 주지를 맡을 때의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스님은 유학 경험을 살려 영어로 외국인 순례자들을 안내하거나, 취미인 헬스 트레이닝을 활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근육 트레이닝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헬스 트레이닝이) 불교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나 운동복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신도들 사이에서도 젊은 주지스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코묘 스님은 "사찰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에 맞추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양하게 불교를 경험할 수 있는 강좌나 이벤트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통과 격식의 세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차세대의 주지스님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처님의 머리카락?" 베트남 불교계 '들썩'

바방 파고다, 사리 전시회 개최
"부처님이 준 것 중 하나" 홍보
사리 진위여부 두고 논란 가중
논란에 미얀마로 머리카락 반환

베트남 불교계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15일 '자유 아시아 방송(RFA)'은 베트남 북부 꽝닌성의 바방 파고다(Ba Vang Pagoda)에서 진행된 사리 전시회에 대한 현지 상황을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바방 파고다에 전시된 '부처님 머리카락 사리'는 미얀마에서 이운된 것으로, 베트남 도착 당시부터 현지 언론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바방 파고다 측은 "이 머리카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 후 첫 공양을 올린 두 미얀마 상인에게 준 8가닥의 머리카락 중 하나"라며 "이 사리는 미얀마의 파라미 국제 불교 사리 박물관에서 베트남 불자들을 위해 이운한 것으로 미얀마의 국보"라고 홍보했다. 전시회와 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천 명의 불자가 운집했으며, 더 많은 일반 관광객이 탑을 방문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 사리의 진위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됐다.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꽝닌성 내무부 종교위원회와 베트남불교를 대표하는 베트남불교 승가집행위원회(VBS)가 전시회에 대한 위법성과 사리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검증작업이 이어지면서 바방 파고다는 "머리카락 사리는 전시회가 끝난 27일 당일 사리가 본래 소장처인 박물관으로 다시 이운됐다"고 밝혔다. RFA 측은 "사리를 봉안하고 있다는 박물관과 박물관을 운영하는 파라미 사원 모두 미얀마 양곤에 소재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취재나,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최고 국가 불교승가 평의회 의원인 한 스님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얀마 내부에서도 사리로 불리는 많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오늘날 이러한 유물들에 대한 진위는 신앙이 아닌 논리적 추론이 필요하다"며 "만약 진정한 부처님의 머리카락이었다면 인구의 87%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더 잘 알려졌을 것이고, 또 해외로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VBS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 1월 4일 회의를 열고, 사리전시회를 주관한 바방 파고다의 주지 틱툭타이민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VBS 부의장이자 사무총장인 틱둑티엔 스님은 발표를 통해 "틱툭타이민 스님은 대중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승가의 위의를 훼손한 전시에 대해 사부대중 앞에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한다"고 전했다. VBS는 논의를 거쳐 틱툭타이민 스님의 참회를 받아들이고, 스님과 바방 파고다가 올해 한 해 동안 국제 교류를 조직하거나 국제 교류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머리카락 사리'로 바방 파고다에서 전시된 머리카락. 사진출처=바방 파고다

美루이빌 불상 한 달 새 2차례 훼손

스프레이 뿌리고 불상 손 훼손
범인 특정 어려워…CCTV 추가

미국 루이빌(Louisville)에 위치한 한 사찰에서 불상이 약 한 달 새 두 번이나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월 17일(현지시간) 루이빌 지역 매체 WDRD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루이빌 비치몬트 지역 뜨안(Tử Ân) 사원에 있는 불상의 손 부분이 훼손됐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신원미상의 피의자들이 이 불상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렸다.

당일 CCTV에 용의자들이 불상에 올라가 양 손목을 떨어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불상은 베트남에서 공수한 돌을 이용해 맞춤 제작돼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상의 손이 훼손된 모습. 사진출처=WDRD

현재 경찰은 사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원은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원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종교를 사랑하고 아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FBI, '사찰 방화' 용의자 공개수배

현상금 1만 달러 내걸어
"종교적 자유 보호 돼야"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불교 사찰 방화 사건 용의자를 잡기 위해 FBI가 현상금을 내걸었다.

FBI는 1월 1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텍사스주 뉴커니에 위치한 휴엔트랑(the Huyen Trang) 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용의자를 공개수배한다"며 1만 달러(한화 약 1300만원)를 현상금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 43분께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사찰 건물 내부에 화염병을 던졌다. 불은 즉각 건물 전체로 번졌다.

FBI 관계자는 "FBI는 모든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종교시설은 위협, 파괴, 폭력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영혼의 피난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FBI가 화재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을 공개했다. 사진출처=미FBI 공식 홈페이지

FBI는 용의자를 키 172~175㎝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나이키 백팩과 캡모자, 장갑, 밀리터리 무늬의 부츠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유산으로 장애인 전시 서비스 강화

국립중앙박물관 신년기자회견
'국보' 천흥사 동종을 활용해
시 · 청각 장애인 체험관 조성
지난해엔 '오감' 개관해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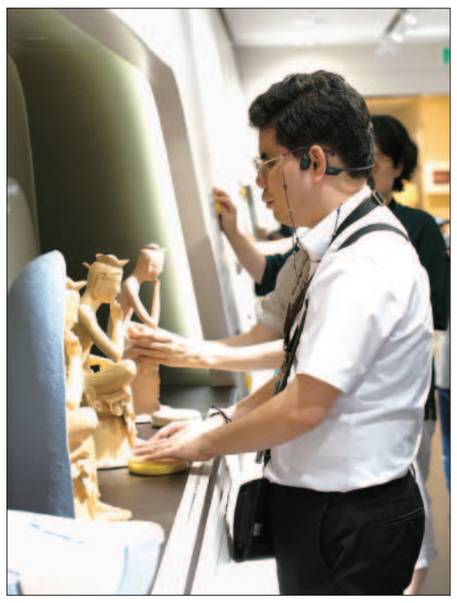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소외지역과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전시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특히 장애인 전시 서비스 강화 사업에 불교문화유산이 활용돼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1월 24일 교육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024년을 박물관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소장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소외지역 지원 등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장애인 등 문화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사업'이다. 문화취약계층 서비스 강화사업은 올해로 2차년도를 맞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교육관에 국보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한 촉각·후각·청각·시각 등 다감각 체험형 전시 학습 공간 '오감'을 개관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두 국보 반가사유상



지난해 조성된 다감각 체험관 '오감'에서 체험하는 사람들. 올해에는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체험관이 조성된다.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의 형태·재질·제작방식·의미 등을 다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감'은 장애·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상설전시실 3층 조각공예관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전시공간이 조성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천흥사 동종 등 금속공예품을 활용하는 체험 공간으로 범종의 재질, 소리,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윤성용 관장은 "음향, 영상, 촉각 전시물을 활용해 범종의 소리와 형태적 특징을 안내자 없이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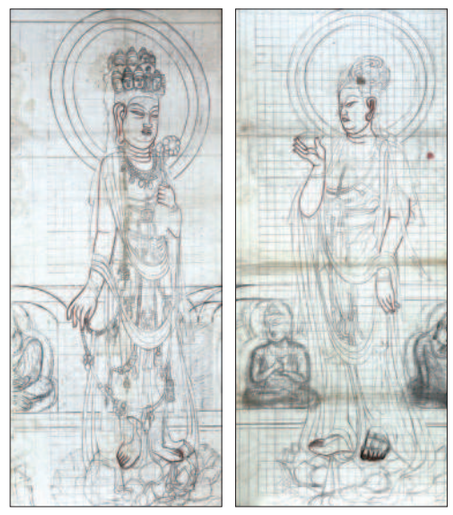
또한 박물관 으뜸홀(로비공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모든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형 복합공간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휴게공간, 수어 음성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삶과 함께하는 박물관',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 이라는 중장기 전략목표 아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인구소멸 위험지역 찾아가는 전시' 개최 △광개토대왕릉비 원석탁본 공개 등 다양한 국내외 문화 소개 △학예인력 전문교육 확대 등 박물관 교육정책 추진 △박물관 소장 황해도 장무이묘 고구려 무덤 출토품 조사 등 분야별 조사연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윤성용 관장은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박물관 관람객 천만 시대를 열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하고 쉬고 갈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생광 화백 불교 작품 불교중앙박물관에 오다

보살상 2점, 청담스님 진영 기증 받아



박생광 화백의 보살상 밑그림.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한국 수묵채색화의 대가 박생광 화백의 불교 주제 작품들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에 기증됐다.

불교중앙박물관은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증식을 열고 박생광 화백의 불교 주제 밑그림 3점을 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이사장 김윤섭)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기증을 받은 작품은 박생광 화백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불교 주제로 그린 밑그림으로 '보살상'을 그린 2점과 '청담 스님 진영' 1점이다.

'보살상'은 석굴암 십일면관음보살상과 문수보살상이 마주보는 구성의 작품으로 세로 2m가 넘는 크기이며, 박생광 화백의 불상 소재 작품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2점의 스케치 화면 구성은 서로 이어진 연필 선묘 작품으로, 여러 점이 이어진 시리즈의 일부가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김윤섭 아이프칠드런 이사장은 "한국 미술의 잠재적 가치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지로 수십 년 동안 박생광 화백의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해온 개인 소장자의 뜻을 이어 불교 주제의 작품 3점을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기증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윤섭 이사장은 "박생광 화백만큼 한국적인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가 드물다. 특히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 정신의 요체를 함축적으로 현대미술에 승화시킨 점을 주목한다"라며 "이번 작품은 박생광 화백이 한국불교를 얼마나 진심으로 연구하고 작품화하고자 노력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성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정신에서 인연법이 매우 소중히 여겨지는데, 박생광 화백의 불상 그림과 청담 스님의 진영 작품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 모시게 돼 너무나 감회가 깊다"라며 "큰 결심을 내려준 소장자를 비롯해 진행을 맡아준 아이프칠드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증자 이름을 끝내 밝히길 고사한 작품의 소장자는 대형 스케치 두 점을 기증해 서명하는 날에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과 종정을 지낸 청담 스님(1902~1971)의 진영 밑그림까지 추가로 기증해 의미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 1월 24일 지정 가결
각황전 앞 1주…유명 관광명소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1월 24일 "화엄사 홍매화가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화엄사 홍매화는 각황전 옆에 위치한 1주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계절 명소이다. 지정 명칭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이다.

문화재청은 지정 사유에 대해 "기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순천 선암사 선암매, 강릉 오죽헌 율곡매, 구례 화엄사 들매화, 장성 백양사 고불매) 중 검붉은 꽃은 화엄사 홍매화 뿐"이라며 "화엄사 홍매화는 3월 초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례 화엄사 화엄매.

검붉은 화색과 두 줄기가 꼬인 수형으로 국민들이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꽃이 피며, 꽃을 구경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무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자연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목의 줄기나 가지의 생육이 굴곡을 만들면서 위로 또는 밑으로 자라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나무들과 비교해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했다.

화엄사는 매년 홍매화를 중심으로 올해로 4회째 홍매화 사진대회 등을 통해 화엄사 홍매화의 경관적 가치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자연은 언제나 소리없이 찾아와 감동을 준다. 지리산 대화엄사 홍매화의 존재와 심미적 가치를 세상에 다시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화엄사 홍매화는 해마다 피고 지고를 300여 번을 하는 동안 국민에게 한없는 감동을 가져다줬다. 앞으로 천연기념물이 된 홍매화가 맑고 청아한 기운이 화엄사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2024년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 제4회 구례화엄사 화엄매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3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 학자들 한자리서 '부처님 생애' 조명

네팔 룸비니 연구센터서 1월 9~11일 국제학술대회

세계 학자들이 한자리서 부처님 생애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룸비니 국제 연구센터(Lumbin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에서 '아시아 전통과 그 너머의 부처님 생애 이야기'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독일, 스리랑카, 인도, 네팔 등 8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와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 김경래 동국대 교수, 김자현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의 관점을 통해 각국에서 해석되고 전달된 부처님 전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됐다. 특히 깨달음을 향한 부처님의 여정에 대한 동아시아적 이해를 형성한 문화적, 역사적, 철학적 차원을 조명해 주목을 받았다.

학술대회 기간에는 카필라바스투와 룸비니 현장 답사도 이뤄졌다. 카필라바스투에서는 로빈 커닝햄(Robin Cunningham) 영국 더럼(Durham)대 고고학과 교수가 직접 안내했다.

대회 개최를 주도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이번 국제대회는 불교의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철학적 차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킨 학술 교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4~1/3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3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4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5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6	속담속에 담은 불교 명쾌하고 쉬운 불교	김성철	오타쿠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 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9	초기불교 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10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 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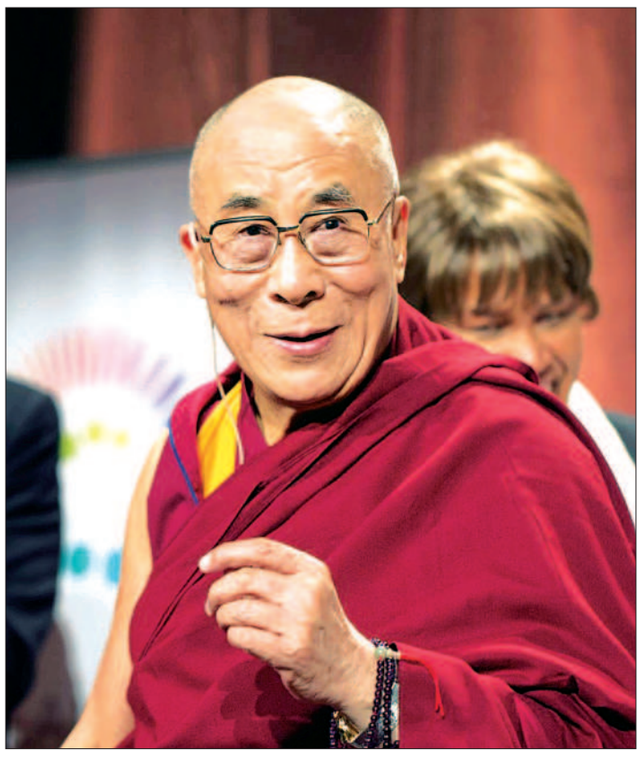
책세상

달라이라마 글에 담긴 정치철학 면면들



달라이라마의 정치철학
수바쉬 C. 편집
허우성 옮김
운주사/ 5만원

달라이라마 사상 담은 글 100편
그 안 담긴 정치철학, 사상 확인
비폭력, 민주주의를 꾸준히 주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의 숭산 스님과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는 달라이라마〈사진〉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말 한마디, 행보는 세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6살의 나이에 제14대 달라이라마로 즉위한 이후, 현대 티베트 역사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말 그대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특히 1959년 인도로의 망명 이후 그의 삶은 오로지 티베트 민족의 염원을 대변하고 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그럼에도 그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의 사상과 행동이 단지 티베트인의 이익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12번째 대원학술총서 〈달라이라마의 정치철학〉은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꿋꿋하게 지켜온 달라이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글 100편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책은 티베트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정치·사회·도덕·영적 사안에 대해 여러 포럼에서 발표된 달라이라마의 담화문, 연설, 성명, 인터뷰 등을 선별한 것으로 주로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표된 글들로 이뤄져 있다.

달라이라마는 보통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책에 실린 글들도 몇몇 글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렇다. 즉흥 연설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고 있거나 사상의 기저를 이루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의 진정성이 온전히 담겨 있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 점이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이다.

이 책에서 드러나는 달라이라마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은 어떨까.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해결을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나 독립이 아니라, 티베트 독자적인 문화의 정체성, 그리고 언어, 종교, 가치, 전통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치권을 갖기를 원한다.

달라이라마는 민주주의의 철저한 신봉자이기도 하다. 입법, 행정 및 사법 기관들이 지정된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작동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의 독단적인 권력에도 반대한다. 당연히 티베트 정치에 민주주의를 도입해오고 있으며, 그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양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달라이라마는 마르크스주의자나 사회주의자에 가깝다. 스스로 사회 경제이론에 관한 한 자신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달라이라마는 "보편적 책임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열쇠"라고 본다. 즉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 국가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 세계평화, 환경문제 등에서 보듯이, 인류는 이제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며, 이러한 공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모두가 보편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게 달라이라마의 주장이다.

이 책을 통해 1950년 16살의 나이로 국가원수의 역할을 맡은 이래, 특유의 인내심, 무한한 관용, 절대적인 평정, 긍정적인 낙천주의로 역경에 처한 티베트인의 희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킨 달라이라마의 삶과 사상, 그 중에서도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생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책을 번역한 허우성 경희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역자 해설에서 "달라이라마는 자비와 공을 가르친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는 허상이 아닌 현실이고 진실"이라며 "자비, 정의, 평등을 불교 원리라 하고 이를 다당제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 체재와 연결한 것은 불교 경전에서가 아니라 격동하는 세계사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얻는 결과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라이라마가 인류의 스승인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탐진치를 잘 다스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그 자비심을 확장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달라이라마에게 자비심과 자유 그리고 평화는 모두 하나다"라고 밝혔다.

김시습 저술 속 선사상 조명하다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
철우 지음
운주사/ 2만8000원

설잠 김시습(1435~1493)은 조선시대 천재 문인으로 생육신의 사람이었다.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김시습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痛忿)하여 나흘 동안이나 두문불출 단식한 뒤, 읽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방랑길에 올랐다.

스스로를 '방외인(方外人)'이라 할 정도로 세상의 격식에 자유로웠던 김시습을 문인 내지 기인으로는 여겨도 그를 불교 승려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 그는 설잠(雪岑)이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였으며, 실제로도 〈화엄석제〉 〈일승법계도주병서〉 〈연경별찬〉 〈십현담요해〉 〈조동오위요해〉 등의 수준 높은 불교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이 펴낸 학술서 〈설잠 김시습의 선사상 연구〉는 승려로서의 김시습의 선사상을 그의 저술을 통해 분석·조명하고 있다.

특히, 저술들에 나타나는 불교사상을 화엄의 성기론과 천태의 성구론, 즉 '불성론'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가 제창하고 있는 불교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의 불교사상, 나아가 한국불교사상사 내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에 저자 철우 스님은 "설잠의 사상 전체가 선사상의 입장에서 화엄과 천태를 재해석하는 독특한 철학적 세계를 구축했다"며 "'선(禪)'을 통한 그의 불교사상은 동북아 불교의 전통을 반영하면서도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계승했다. 불교와 유(儒)·도(道) 양교를 회통하고, '선(禪)'과 정토(淨土)를 회통시켜서 '생활선(生活禪)'을 제창한 점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현대인의 감정, 어떻게 다뤄야 하나

진흥원, 〈불교문화〉 2월호 발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계 대표 대중문화지인 월간 〈불교문화〉 2월호(통권 제282호)가 발간됐다.

2월호 특집은 '현대인의 감정, 어떻게 다뤄야 하나'로 감정이란 과학적으로 무엇인지, 불교에서 보는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김학진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감정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감정은 뇌와 신체 간의 소통 장애이며, 감정의 원인을 알아차리고 최적의 감정 해소 방식을 찾아가는 자기 감정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에서 보는 감정'을 통해 불교에서 감정을 느낌, 수라 부르고 느낌은 업보의 연속으로써 윤회적 삶을 성립시키는 중심 역할이라고 했다.

권석만 서울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불교의 계정혜 삼학으로 부정 정서 다스리기'를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부정 편향을 잘 이해하고 부정 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祝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全7권 完刊!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기신론의 완결판!!!

기신론 해동소 별기를
현대식 어휘로
완벽하게 풀이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중흥에는
이 혈맥기 혁명밖에
없다.



원효센터 공파스님 역해/신국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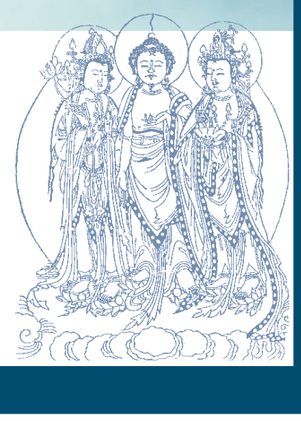
만만한 게 기신론이다. 기신론 안 가르친 스님이 없고 기신론 안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명보살의 혈통과 원효성사의 맥박을
펄펄 뛰게 살려놓은

이 혈맥기를 모르고 불교를 말하면 반풍수고
이 혈맥기를 벗어난 수행은 사이비다.

그만큼 이 혈맥기는 대승불교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독보적 필독서다.



• 1권 392쪽, 20,000원 • 2권 424쪽, 20,000원 • 3권 384쪽, 20,000원 • 4권 428쪽, 20,000원 • 5권 468쪽, 23,000원 • 6권 492쪽, 25,000원 • 7권 588쪽,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동식물 천도재 올리는 스님의 '녹색법문'



억지로라도 쉬어가라
현종 지음
담앤북스/ 1만6800원

1999년부터 천도재 봉행해
생명존중 정신 확산에 초석
파괴되는 환경 이야기 담아
"내가 정한 속도로 살아가자"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린 그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그 이상한 걸 왜 지내십니까?"

20년 넘게 매년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하는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에게 가장 많이 따라붙는 질문이다. 불교계에 반려동물 천도재가 드문드문 생겨난 게 벌써 몇 년 전이니 20여 년 전 반려동물도 아닌 '동식물 천도재'를 올린 스님을 본 사람들은 퍽 궁금했겠다. 도대체 그게 무엇이고 왜 하는 건지.

1999년 강릉에 현덕사를 창건하고 첫 백중을 준비하던 현종 스님은 어린 시절 장난을 치다가 빨랫줄에 앉은 새끼 제비를 죽인 것이 마음에 걸려 천도재를 올리기 시작했다. '망(亡) 합천 제비 영가'라는 위패를 만들어 올린 천도재는 이듬해부터 '사람으로 다친 영혼, 사람으로 위로하다'라는 주제의 동식물 천도재로 거듭났다. "세상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설하신 부처님의 '일체중생 개유불성' 가르침을 따라 인간의 탐욕으로 목숨을 잃은 동물과 식물을 위로하고 그들이 육도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발원하기 위해서다.

불교계에서 으레 하는 '물고기 방생'이 '인간 방생'의 가치로 전환되는 데 걸린 시간만큼 동식물 천도재도 처음엔 대중의 이해를 쉽게 구하지 못했다. 조선시대를 거치며 유교적 정서가 짙게 깔린 대한민국에서 조상의 위패와 동식물의 위패를 나란히 두는 일이 가당키나 했을까. 하지만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올 사람의 길이 된다'고 했듯이 동식물 천도재는 어느덧 연기의 가르침을 새기고 생명존중의 정신을 확산하는 초석이 됐다.

〈억지로라도 쉬어가라〉는 이런 동식물 천도재를 올리는 현종 스님의 녹색 산문집이다. 녹색인 이유는 현종 스님이 자연환경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 동식물 천도재가 현종 스님을 대표하는 수식어지만 현덕사는 불교환경연대의 제25호 녹색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땅에 뭔들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든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땅에는 당연히 인간도 살 수 없다. 봄날에 새들의 사랑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봄 나비가 날아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런 곳이 살기 좋은 나라다." p.92 '사라진 봄날의 추억' 중에서

책 이름은 현덕사 다실에 걸린 족자 문구에서 따왔다. 오래전 해인사 장경각에서 기도하던 한 스님 방사에 적혀 있던 글귀를 계속 새기고자 현덕 스님이 족자로 만든 것이다. 스님은 "남의 말이나 속도에 나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과 속도에 따라 살아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면 현덕사에서 '억지로라도' 쉬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뜻을 담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아침해는 뜨고 지고 저녁에는 둥근달이 뜬다. 그리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초롱초롱 빛난다. 내가 없어도 이렇게 세상은 잘도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쉬어가자." p.200 '억지로라도 쉬어가라' 중에서

책은 동식물 천도재 이야기와 급속도로 파괴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스님의 쓴소리 외에 현덕사에서 마주하는 사계절을 비롯해 현덕사를 찾는 사람들과의 인연담도 담고 있다.

▲저자 **현종 스님**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등명낙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중앙승가대 학보사 편집장 소임을 맡은 것이 인연이 돼 IMF사태 때 서울역 노숙자들과 같이 지내며 애환을 다룬 글을 불교신문에 실어 반향을 일으켰다. 1999년 강원도 소금강 계곡 만월산 중턱에 현덕사를 창건, 환경과 생태운동에 관심을 두고 매년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민화 한 점으로 염원하는 희망찬 하루



365일 민화 일력
윤열수 지음/ 원더박스/ 2만5000원

그 옛날부터 민화에는 우리 소망을 실현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바람을 담아 민화를 그리고 모셨다. 〈삼국지연의〉 〈구운몽〉 〈춘향전〉 등 조선후기 인기 소설에 등장하는 담배 먹는 호랑이나 달에서 약방아를 찧는 토끼도 민화로 표현됐듯 말이다.

'마음의 그림'이라 불리는 민화가 바로 지금 우리 곁으로 다시 소환됐다. 책 〈365일 민화 일력〉은 매일 한 점씩 민화를 감상하며 희망찬 하루를 염원할 수 있도록 366장의 민화와 그에 대한 해설이 실렸다.

저자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장은 민화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조선후기 산신탱화 연구'로 석사 학위를, '문자도를 통해 본 민화의 지역적 특성과 작가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 수집한 민화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개관한 가회민화박물관에는 민화 2700여 점을 비롯해 전적류, 무신도 등 총 3500점의 자료가 소장·전시돼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화 박물관인 가회민화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국공립박물관, 개인 소장품, 해외 보관 중인 작품까지 직접 엄선해 다양한 민화를 책에 담았다.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용과 호랑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과 불로초, 과거 급제와 출세의 꿈을 담은 잉어와 쏘가리, 부귀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모란과 천도복숭아,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과 나비, 가족의 화목과 번영의 뜻을 담은 토끼와 수박 등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민족의 곁을 지키며 행운과 복을 가져다준 민화 속 주인공들을 총망라했다.

그림마다 핵심을 짚는 설명을 붙여 '보는 기쁨'과 '읽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민화에 등장하는 식물과 동물, 상상으로 빚어낸 창조물들이 그림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진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림에 투영된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지 등 독자가 가질만한 질문의 해답을 친절하게 풀어놨다. **김내영 기자**

스님이 전하는 특별한 부자수업



부자수업
법상 지음
마음의숲/ 2만원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인 '목탁소리'를 이끄는 법상 스님이 내놓은 〈부자수업〉은 '마음이 부자이면 되는 것이니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오'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중의 경영서나 자기계발서와 같이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하지 않는다.

법상 스님은 "돈을 버는 방법 속에 비움의 지혜가 있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서도 현실에서는 돈을 벌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결핍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법상 스님은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어떠한 지연도 없이 그 에너지가 우주 끝으로 퍼져 나간다고 하는 비국소성(non-locality) 양자물리학을 인용,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우주로 내보내지 말고 먼저 돈을 끌어들이는 생각인 풍요의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했다.

내보냄의 법칙이 곧 끌어당김의 법칙이며 말 그대로 우주 끝까지 그 생각의 에너지는 전달되고, 그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또 다른 생각과 즉각적으로 공명하게 되어 진동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되돌아올 때는 함께 공명했던 많은 비슷한 에너지들을 끌어와서 창조 활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법상 스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나는 풍요롭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와 '나는 풍요롭다, 부자다,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천지 차이가 난다. 내가 풍요롭다고 생각되면 돕고, 나누고, 보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며 그 사람의 의식 자체가 베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복락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바로 그 뜻이라는 게 스님의 조언이다.

신중일 기자

"내 안의 감로수를 찾아라"



내 마음의 크기
원영 지음
수오서재/ 1만6800원

불교 계율을 전공한 불교학자이자 현대적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오고 있는 원영 스님이 오랜만에 에세이를 선보였다.

원영 스님의 〈내 마음의 크기〉는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성찰하는 불교의 수행자지만, 현실과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렸던 스님의 자기 고백이자 성찰이다. 실제 스님은 출가한 후에도 헛된 집착과 소유욕 때문에 마음이 바늘구멍만큼이나 옹졸해질 때도 있었고, 괴로움에 그만 모든 걸 뒤로하고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털어놓는다. 그러다 좋은 인연들과 단절되고 치열하게 마주하던 마음도 더는 챙기지 않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됐다. '허상을 좇을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감로수를 찾아야겠다'고.

스님의 글은 읽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린다. 군더더기 없이 맑은 음성이 책을 여는 순간순간 전해진다.

1장 '나를 다독이며 삽니다'에는 원영 스님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다. 출가 후부터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서툴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2장 '서로에게 기대어 기둥이 되어주고'에서는 가족, 친구 등 관계에 관한 고민과 해답을 공유한다. 3장 '저 산꼭대기를 바라보며 걷자'를 통해서는 긴 고립의 시기를 지나며 새로이 지니게 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4장 '지혜의 꽃을 피우리'에서는 여러 스승에게 배운 깨우침의 순간들을 전한다.

신중일 기자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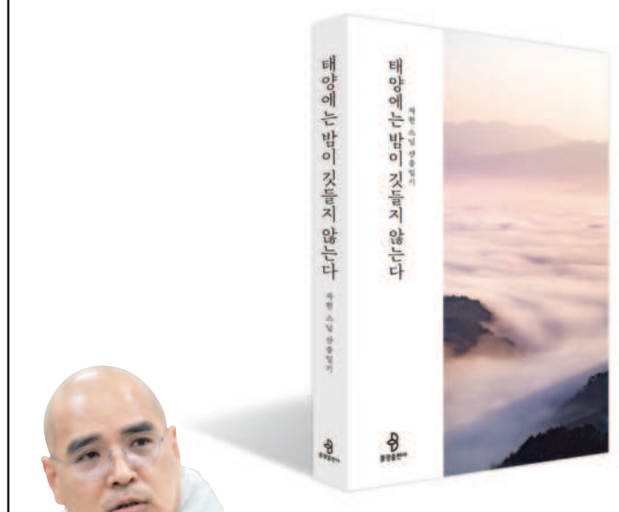
한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을 거쳐
기록되고 가슴에 새겨져서 전해진
이 짧은 글 속에는 당대의
사상가와 문장가들이 남긴,
시간을 초월하여 곱씹을 만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
법정 스님의 뒤를 잇는
불교계 대표 문장가 원철 스님이
한시 가운데서도 '명구'만 가려뽑았다.
한국·중국·일본이라는 지리적 차이와
승속을 막론하고 옛 문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한시를 찾아
핵심 구절만 옮기고
새롭게 이야기와 의미를 더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인생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하는 위로와 응원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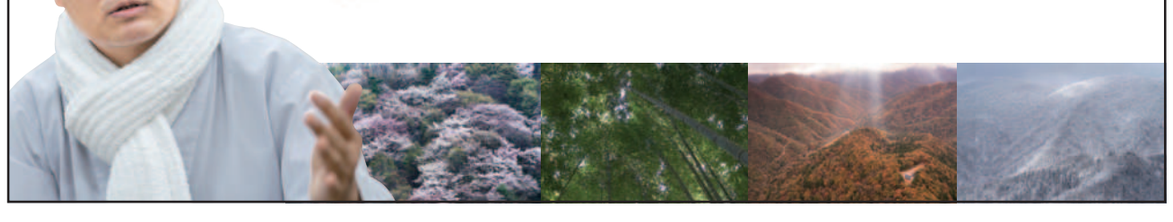
세상 모든 연약한 존재들을 향한 자현 스님의 감성 법문



"생각이 맑은 것보다는 정돈된 것이 좋다.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흔들리는 것이 옳다."

산사와 속세, 성과 속을 오가며
잠시 동안의 침묵 사이에 떠오른 말들,
이 책에 실린 100여 편의 짧은 글은
고통스러운 삶을 애써 버티며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존재를 향한 자현 스님의 기도이다.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
자현 스님 산중일기



지상백고좌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 대원 대종사**

“마음자리 닦는 것이 본업…본업으로 살라”

선불장(選佛場),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라는 말로 사찰의 승당이나 선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충남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에도 ‘선불장’ 현판이 큼직하게 걸려 있다. 부처를 선발하는 곳, 오등선원을 이끄는 선지식이 선원의 조실이자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학산 대원 대종사다.

학림사 오등선원은 대원 스님이 1986년 옛 제석사의 터에 건립한 사찰이다. 10여 년 후 학림사 내에 오등선원을 세워 가람의 격을 갖추었고, 선원의 개원과 아울러 대원 스님을 조실로 추대했다.

2001년에는 오등시민선원을 건립해 일반 불자들도 정진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충남지역 불교의 중요한 사찰로, 또 참선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행도량인 만큼 학림사에 들어서면 ‘이뭣고’를 새긴 커다란 돌이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뭣고’를 생각하게 된다. ‘이뭣고’ 아래에는 ‘화두일념’이라고 새겨져 있다. 공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두석이 먼저 일갈한다.

찾아뵌 대원 스님의 거처는 좁고 소박하다. 먼저 엄동설한의 날씨에 건강은 어떠신지, 근황을 여쭈었다.

“24시간 365일 정진하는 도량이라 그것에 매진하다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 줄 몰라요. 용맹정진하는 도량이라 매주 철야정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요.”

대원 스님은 여든이 넘은 노령이지만 요즘도 학림사 오등선원서 여름과 겨울, 여섯 달의 안거 때마다 방부(房付)를 들인 후학들과 똑같이 용맹정진을 한다. 노구임에도 구도 열정 만큼은 아직도 ‘현역’이다.



학산 대원 대종사는…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상주 남장사로 출가해 1958년에 사미계를, 1962년에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일대시교를 이수한 뒤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 받았으며, 21년간 제방선원을 다니며 효봉 · 동산 · 고암 · 경봉 · 전강 · 향곡 · 성철 · 구산 ·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2001년에는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해 간화선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2014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았으며, 조계종 원로의장을 지냈다. 법어집으로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와 〈진흙속에서 달이 뜨네〉 등이 있며, 지난해에는 강설집 〈조주록 강설〉을 펴냈다.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가졌다

대원 스님에게 법을 청하니 “우리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여기 선불장에는 문턱이 없다”며 “화두를 열심히 참구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방편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말머리를 열었다.

“불교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심(佛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 설법하신 것은 불심 즉 부처의 마음자리를 설하셨어요.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부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꽉 닫힌 철통같은 사람이요, 아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은 탐진치 삼독에 대한 마음, 칠정(七情) 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전쟁하고 살생하고 불행한 일을 자초해서 겪고 있다는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중생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자신의 의식을 바로 보면 불성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성이 곧 불심인데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불심은 무엇일까? 대자비, 대지혜, 대광명의 마음, 대만족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곧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편안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합니다. 큰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목마르다 말하지 말고,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고프다고 말하지 말라!”

佛心으로 행하고 사는 게 ‘불교’

부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
대자비, 대지혜의 마음이 ‘불심’
불심을 아는 자, 눈이 열린 사람

2016년 하안거부터 ‘조주록’ 강설
6년 동안 525칙 공안을 전부 설해
“뜰 앞의 잣나무엔 아무 의미 없다
선사의 의지를 바로 보는 것이 禪”

될성부른 나무였던 대종사

스님의 소참 법문을 듣고, 출가 이야기를 청했다. 선지식의 출가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발심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원 스님은 남장사에서 당대 선지식인 고암 스님을 은사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득도·수계했다. 대원 스님은 행자시절부터 ‘대근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또렷한 선기(禪氣)를 보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어요.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아 밥을 굶기도 했어요. 매번 밥을 태워서 어른스님께 야단도 많이 맞았지요. 밥이 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염불했는데, 어느날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때다가 홀연히 깨달음이 있었어요. 5년 동안 행자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중생심이 녹아 없어졌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지요.”

스님은 배움의 자리에서는 어떤 고초가 있어도 참고 공부했다.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 대구 동화사, 문경 김룡사, 범어사, 해인사, 송광사, 월내 관음사, 불국사, 지리산 칠불암, 통도사 극락암, 쌍계사 금당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21년간 안거했다. 전강 스님, 성철 스님, 향곡 스님을 비롯해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참문(慘聞)하고 법거량을 했다.

그 과정에서 1966년 남장사 혼해 스님 문하에서 두 번째 오도를 했다. 은사인 고암 스님을 대각사에서 뵙고 ‘뜰 앞의 잣나무’ 화두를 계속 들었다. 고암 스님이 해인사 방장으로 계실 때 ‘뜰 앞의 잣나무’ 화두를 타파하고 3번째로 오도했다. 당시 지어 바친 오도송으로 고암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인가하고 학산(鶴山)이라는 법호와 전법게를 내렸다. 고암 스님에게 올린 오도송은 이와 같다.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 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忽聞栢頭手放語)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廓然銷覺疑團處)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明月獨老淸風新)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凜凜闊步毘盧頂)

〈조주록 강설〉, 간화선 진수 담다

이야기는 대원 스님의 출가담에서 간화선에 대한 강설로 이어졌다. 특히 스님은 〈조주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주록〉은 당나라의 선지식 조주 선사(778~897)의 어록으로, 불자라면 들어봤을 ‘개에겐 불성이 없다’ ‘뜰 앞의 잣나무’ 등 숱한 화두들이 담겼다.

대원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선수행에 대한 바른 안목을 심어주기 위해 〈조주록〉 강설을 2016년 하안거부터 시작해 6년 동안 283회의 법회를 통해 〈조주록〉 525칙의 공안을 전부 강설했다. 6년 동안 행한 법문을 2023년 〈조주록 강설〉 상·하 편으로 발간했는데, 이 책을 두고 공부인들은 간화선의 진수가 담겨있다고 극찬한다.

스님은 〈조주록〉 17칙에 대해 강설했다.

한 스님이 조주 선사께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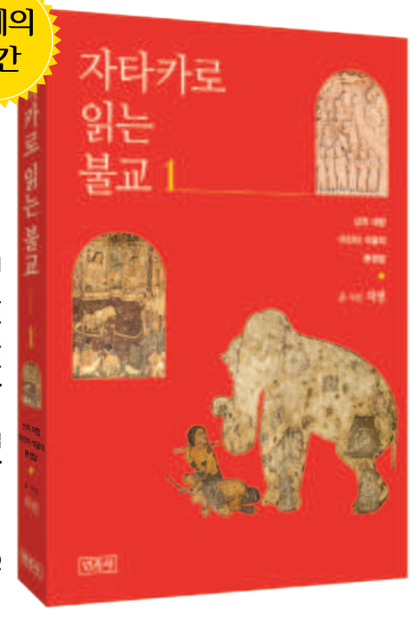
“법에는 특별한 법이 없다 하셨는데, 어떤 것이 법입니까?”

“바깥도 공(空)하고 안도 공하고, 안팎이 모두 공하다.”

13면에 계속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화제의 신간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 대원 대종사

노장이 전한 당부…“눈 뜬 사람이 돼라”

12면에 이어

참선·염불, 중생 고통 원인들 제거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
“눈 앞 보이는 육신에게 속고 있다
현실 긍정하며 그 안 진리를 보라”



오등시민선원을 찾아 수행 정진하는 재가 수행자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학산 대원 대종사. 수행 중 혼침이 온 재가 수행자에게 대종사는 어김없이 장군죽비를 내린다.



학림사 오등선원 앞에 있는 ‘이뭣고’ 비석. 화두일념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스님은 “공이라는 것은 의식적 상식적 사량분별로는 모르는 것이다. 실질적인 공부를 통해 깨달아야지 공을 알 수 있다. 실지로 공함을 체득하면 생사열반을 해탈하고 자유자재해 걸림이 없다”라고 설했다.

사바세계의 팔고(八苦), 삼도 팔풍의 모든 액난은 깊이 참구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없어진다고 한다. 공한 줄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본래 그지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반야지혜만이 자기의 문제를 벗겨낼 수 있다는 게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어 대원 스님은 조주 스님의 “뜰 앞의 잣나무”와 수초 스님의 “삼 세근(麻 三斤)”을 예로 들며 조사의 의지를 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어리석은 범부는 ‘뜰 앞의 잣나무와 삼 세 근’이라는 말을 따라가고, 거기에 머물러서 생각합니다. 개는 흙덩이를 따라가지만,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어요. 뜰 앞의 잣나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잣나무’라고 한 조주 스님의 그 의지를 바로 보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마친 대원 스님은 필자에게 주장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주장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묵묵부답인 필자를 두고 미소를 지어보인 스님은 법문을 이어갔다.

“이 주장자를 보고 바로 ‘부처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님이니 거기에서 부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나무 작대기로만 본다면 어두운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여기서 부처가 있는 것도 보고 조사의 의지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승과의 문답이 중요한 이유

학림사 오등선원은 용맹정진 수행도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생은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공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한 눈푸른 납자들이 공부하는 수행처이다.

실제, 2017년 24명의 수좌들로 시작한 3년 용맹결사는 매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씩 좌선했다. 화두일념으로 수마와 망상을 이겨가며 정진해 2020년에 12명의 수좌들이 회향했다. 당시 세납 80세에 가까웠던 대원 스님도 3년간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해 많은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지금도 오등시민선원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철야정진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150명이 넘는 불자들이 모여든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참선 수행에 들어간다. 모두가 잠든 밤에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들고 밤을 새운다. 장군죽비를 들고 경책하는 대원 스님이 있어 불자들은 공부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오등시민선원의 특징은 재가자들도 1년에 4번 일주일씩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다.

공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수마를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참선수행을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조복받는 것인데, 스님만의 비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스님은 단박에 “비법 같은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설법을 이어갔다.

“〈금강경〉에 보면 항복기심(降伏其心)이 나옵니다. 모든 불행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중생심을 조복받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 일념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일체 중생에 대한 마음을 바로 조복받아서 불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화두를 지극히 참구하는 일념이 되면 일체를 항복받아요. 일념이 되면 나중에는 일념이 무너져서 무념처가 되고, 무념처가 무심이 되면 중생심이 없어지고 화두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항복기심이 됩니다.”

오등시민선원에서는 철야정진 후 차담시간에 조실스님과의 문답이 이루어진다. 공부인에게 제일 반가운 것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고,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는 것이다.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육조 혜능 스님의 점검으로 깨달은 회양 스님의 이야기다.

남악 회양 스님이 육조 혜능 스님을 찾아갔다. 혜능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었는데 회양 스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후 회양 스님은 8년 동안 혜능 스님의 물음을 참구했다. 어느 날 홀연히 깨닫고 혜능 스님을 찾아가서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이 “그렇다면 닦아 증득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 없지 않으나 물드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회양 스님은 좌우분별도 하지 않고 공부했기에 혜능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다.

회양 스님의 일화에서 선지식과의 문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대원 스님으로부터 공부를 점검받는 오등시민선원의 불자들은 수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부업으로 살지 말라

대원 스님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전도몽상(顚倒夢想)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세상살이에는 주업(主業)과 부업(副業)이 있는데, 부업을 주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힘들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일생동안 바쁘게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오히려 불행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업을 버리고 부업으로만 살아가기에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일에 목숨을 던져서 일합니다. 돈, 부귀,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부업에 불과합니다. 돈과 명예를 좇아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살이에서 익힌 습성이 도리어 업이 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불심 자리를 찾아 참선수행을 하거나 염불을 하고, 도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는 그 일념은 중생들이 익혀온 고통의 원인을 항복받아 제거합니다. 본래의 맑고 밝은 마음,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지요. 불심은 만유의 근본인데, 내 마음 자리를 닦는 것이 본업입니다.”

주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참선수행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님은 “참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행동하는 일체가 화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긍정하면서 그 속에서 깊은 진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부처 자리를 묻어놓고 반쪽 생활만 하는데, 이처럼 부업을 주업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몽상이라는 것이다. 지금 자신이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부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부업이란 책의 부록과도 같다. 이것은 대중을 향한 스님의 경책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은 없어요. 몸과 마음도 변하는데 변하는 그것을 진상(眞相)으로 알고 믿고 있어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자기 재산이라고 착각하지요. 인연에 의해 합쳐져서 존재할 뿐, 숨이 끊어지면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인데 그것을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육신에게 속고 있어요.”

눈 감은 사람이 되지 말고 눈 뜬 사람이 돼야 한다는 대원 스님의 간곡한 당부는 중생에게는 꼭 감로법이다.

토요일마다 150명이 넘는 불자들에게 대원 스님은 “참선 수행으로 반야지혜를 증득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한다. 스님과 제자들의 구도 열정은 학림사의 새벽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국의 간화선이 학림사에서 제2의 르네상스를 맞는 셈일까. 은산철벽 같은 계룡산도 학림사에 문을 내어주는 듯하다.

문윤정 / 작가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현대불교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❸ 경주 남산, 왜 불국정토 됐을까(2)

▶한줄 요약
신라 왕릉이 집중된 경주 선도산은 신라의 중요 성산(聖山)이었다. 토착신앙처였던 선도산은 불교가 전래되며 불국정토가 됐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산 정상에 조성된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이다.



신라 神聖이던 선도산, 부처님 나라 되다



경주 선도산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의 모습. 불교 전래 후 선도산이 토착신앙처에서 불국정토로 변화했음을 알려주는 문화유산이다.

신라인은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경주 선도산(仙桃山)과 단석산 꼭대기 바위에 부처님을 조성했다. 신을 섬기던 신라인들에게 산 정상에 우뚝 솟은 바위는 신과 소통하거나 신성이 깃든 신령한 바위로 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신 또한 윤회하는 존재로 천상에 태어난 중생임을 알게 된다. 하늘과 산과 바위에 스며들어 있던 절대적 신의 권위는 불교문화에 녹아들어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이 된 것이다. 당연히 신라인들이 섬기던 하늘의 신은 윤회하는 중생이란 의미에서 인간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고, 산과 바위의 성스러움에서 신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처님의 권위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라인들이 섬기던 신성이 깃든 산의 바위들은 부처님이 계신 불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해주신 불교에서 '신'의 의미를 살펴보자.

수행을 열심히 해 최초로 하늘 세계에 태어난 중생이 있다. 최초로 하늘 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홀로 있기에 다른 중생이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길 갈망한다. 이후 다른 중생들도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러자 처음 하늘 세계에 태어났던 중생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이 하늘 세계에 먼저 있었으니 하늘 세계의 지배자이며 하늘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의 창조주이다.' 나중에 태어난 하늘 세계의 중생들도 처음으로 태어난 중생을 보았기에 창조주란 것에 동의한다.

이상은 〈범망경〉의 신에 관한 내용을 축약해 정리한 것이다. 불교에서 창조주는 중생이 착각해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 중생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복덕이 가득 차면 윤회를 통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다. 이때 우연히 많고 많은 하늘 세계 중 한 곳에 가장 먼저 태어난 중생은 자기보다 뒤에 태어난 하늘 세계 중생을 보면서 착각한다. '가장 먼저 있었기에 내가 혹시 창조주가 아닐까' 착각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하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개의 하늘 세계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도리천의 하늘 세계가 33개가 더 있기 때문이다. 즉 무수히 많은 천국과 천당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선 〈디가니까야〉의 〈삼명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어떠한 수행자(바라문)라도 하늘의 신(창조주)을 본 자가 있는가? 최초로 만트라(주문)를 만들고 만트라를 설한 자가 있다고 하자. 최초의 신의 소리를 만든 자나 이후 따라하는 그 어떤 자도 '나는 하늘의 신(조물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본다'고 말하는 자는 없다. 그 어떤 자도 하늘의 신(창조주)을 직접 본 자는 없다."

불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 신이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불법과 불자를 보호하는 화엄성중과 옹호신장의 의미로 존재할 뿐이다. 창조주라는 절대적 존재는 있을 수 없다. 만약 창조주가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면 헛것을 믿고 의지할 뿐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 신은 육도윤회해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 중생이다. 불교를 통해 이것을 알게 된 신라인들에게 신이 거주하는 산과 바위는 불국정토와 부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신성의 권위가 부처님의 성스러움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불교가 전래되기 전 경주에 있는 선도산은 신라 최고의 신이 거주하던 산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14권에 보면 고려시대 김부식이 경험한 일화가 소개돼 있다.

김부식이 송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한 집에 선녀를 조성한 신상을 보게 된다. 이때 당나라 사람인 왕보가 김부식에 말한다. '옛날에 황실의 딸이 신라(진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신라의 시조 왕이 됐다. 황실의 딸은 신선이 돼 선도산에 머물렀는데 이 선녀의 상이다.' 또한 김부식은 송나라의 사신으로 고려에 온 왕양이 동신성모(東神聖母)에게 제사 지내는 글을 보았다. '현인을 잉태해 나라를 처음 세웠다.'라는 글이 있는데 동신성모가 곧 선도산의 신성(神聖)임을 알았다.

선도산, 신라왕릉 집중된 중요 聖山
불교 전래 후 신라인 토속신앙 대체
산 정상에 '마애여래삼존입상' 조성
신성한 바위들에 불상 조성해 예경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의 생모로 전하는 '선도산신'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의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에도 전한다. 선도성모는 서술성모(西述聖母)로 불리기도 한다.

신모(神母)는 본래 중국 황실의 딸인데 이름은 사소이며 신라 선도산에 와서 살면서 지선(地仙)이 됐다. 신모는 나라를 지키는 최고의 신이 됐으며 제54대 경명왕(景明王)은 신모를 대왕으로 책봉했다. 신모가 처음 신라에 와서 낳은 아들이 첫 임금이 됐으니 혁거세와 알영 이성(二聖)이 나온 것이다.

신라에서 선도산신은 혁거세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다. 이것이 고려가 건국된 이후 잊혔다가 송나라에서 김부식이 듣고 있다. 신라의 왕에게 대왕으로 책봉되기도 하는 선도산신은 불교가 전래되면서 퇴색되기 시작한 것 같다. 신이 부처님으로 대체되면서 선도산신도 잊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 됐건 선도산은 신라에서 매우 중요한 산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선도산 동쪽 줄기에는 진흥왕릉과 300여 기의 고분이 있고 바로 옆에는 삼국을 통일한 무열왕릉이 있는 대형의 서악동 고분군이 있다. 신라 왕궁 중심에 있는 대형 고분 이외 또 다른 대형 고분이 있는 곳은 서악동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선도산은 신라 지배계층인 왕실과 연관된 중요한 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실의 무덤은 신성한 산에 접해 조성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80m 높이의 선도산 꼭대기에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이 조성돼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보여준다. 신을 섬기는 선도산신 신앙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부처님이 계신 불국정토로 변모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선도산 정상에 우뚝 솟은 바위를 신라인들은 선도산신의 신령스러움이 깃든 바위로 여기고 섬겼을 것이다. 이것이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 바위에 아미타 삼존불을 조성해 선도산을 부처님의 불국정토로 변모시킨 것을 확인시켜준다.

선도산 정상에 있는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의 본존불은 아미타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높이가 6.85m이다. 두 협시보살은 우측 보살이 4.62m이고 좌측 보살이 4.55m로 모두 입상이다. 선도산 정상 부근에 솟아 있는 큰 바위의 한 면에 본존불상을 조각하고 좌우에 보살입상을 별도로 조성했다.

현재 본존불상은 바위의 암벽이 파괴돼 머리의 윗부분과 신체의 많은 부분이 훼손돼 있다. 코와 입술은 분명하게 확인돼 두드러져 보이는데 뭉툭한 큰 코에 부드럽게 다문 입술은 넓은 사각의 턱과 함께 토속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수인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과 소원을 들어주는 여원인으로 8세기 전후 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협시보살은 둘 다 몇 개의 부분으로 파괴돼 계곡 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두 협시보살 다 웃는 모습이 맘씨 좋은 동네 청년 같아 소박하다. 왼쪽 협시보살은 총 4개의 부분으로 파괴돼 있었으며 머리의 삼산보관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관세음보살로 판단된다. 왼손은 밑으로 뻗어 정병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가슴 중앙에 손바닥을 보이며 들고 있다. 오른쪽 협시보살은 5개의 부분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인데 떨어져 나간 왼쪽 팔과 가슴 부분은 찾지 못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왼쪽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면 오른쪽 보살은 대세지보살이 되며 본존불은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다.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역시나 동네 맘씨 좋은 청년 같다. 전반적으로 웅장한 중앙 본존불인 아미타 부처님은 소박하고 투박한 동네 아저씨 같고 상대적으로 왜소한 두 협시보살은 웃거나 미소를 띤 맘씨 좋은 청년 같아 친근한 불상이다.

신라인의 일상생활과 함께했던 어머니 신인 선도산신의 이미지가 동네 아저씨 부처님과 마음씨 좋은 청년 보살님으로 조성됐나 싶기도 하다.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은 웅장하지만 친근한 신라의 부처님이다. 신라는 이렇게 신성이 깃들어 있던 산을 부처님의 성스러운 불국정토로 가꾸어 가기 시작한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NEW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69호 | 15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8억

010-6764-0034

지리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 대지 :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 건물 : 36평 2동, 8평 2동,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 결정

010-4752-0459

사 찰 안 내

종교종단 연수원 기도원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원동조교로 453
- 대지 : 임야 2000평 중 대지 400평 대웅전, 산신각, 기도처, 요사채, 숙소 2차선 도로접 버스주차장 200평 포함 향후 재개발 가능 임야 다수
- 스님 고령화로 매매 원함
- 8억 5천 (조정가능)

010-2415-26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000만원

010-9456-0509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고 기도하기 좋은 절입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43 (호계동)
- 3층 상가건물 3층 약 45평 방3칸 법당시설 완료되어있음
- 임대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
- 포교지로 적합

010-9110-3301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회원구 회원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도심 번화가에 포교지로 적합

010-4438-8868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산 434.442.443.434.439.446.439.440)
- 매매금 : 매매 3천만원 (1,000평 가까이)
- 자연인, 굿당

010-2861-3433

명상원 최적지 안내

- 위 치 : 강원도 영월 연하리 연하계곡
- 부 지 : 9,600평, 650고지, 차량진입 가능
- 집 1채 (2층 사용), 집 창고 1채
- 십승지, 사찰 및 사찰 요양원 최적지
- 일반 건강 요양원 최적지, 교육원 시설 최적지
- 글램핑캠핑가능, 최상의 자연환경
- 가 액 : 10억 (약간의 조정 가능)

010-6701-770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69호 | 16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비구니스님 한분 모십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010-4490-3544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여하시불(如何是佛) 무엇이 부처입니까? 지금 그와 같이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부처입니다. 티끌만한 거짓도 허망도 없이 이렇게 당신이 곧 부처님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하오니 원하시는 분들께서 법회를 마련하시면 참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010-5366-4905 무심 합장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손문철	T 053-985-9190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절망 속 성찰로 나아갈 길 찾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㉜ 불교적 세계관으로 보는 SF



영화 〈인터스텔라〉 한 장면.

"수행으로 깨닫고 부처 이르라"
종말 아닌 희망 강조하는 불교
SF 주인공, 고난 극복 수행자
역경 속 자신 마주하며 성장

많은 종교들은 종말을 이야기한다.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이 미래에는 모두 멸망하게 된다면서 그때 자기 종교만이 구원을 약속하리라는 종말론은 대중의 믿음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유효하다. 그런데 불교는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현세를 극복할 희망을 이야기한다.

현상계는 생성과 지속,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는데, 언제부터 윤회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행을 완수해 모든 번뇌를 끊고 다시 생사의 세계에 윤회하지 않는 아라한이 되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불이 있었든 미래불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미래가 오게 되더라도 그 미래에도 중생을 제도하려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든든하게 믿음을 준다.

많은 SF영화들은 이런 불교적 세계관에서 볼 때, 아무리 현재가 절망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류차원의 수행을 밀어붙이는 장르라고도 할 수 있다.

가령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던 1999년 이전에 21세기는 세상의 종말로 예언되던 시기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묵시록적 재앙을 겪어낸 후에 새로운 천년 왕국이 도래하리라던 시기이기도 하고, 과학 기술의 무한한 진보로 인류가 우주 식민의 시대를 열게 되리라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로 원고를 쓰는 것이 일반화된 세상에서 밀레니엄 버그가 몰고 올 문명의 혼란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우왕좌왕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1968년에 제작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경험 불가능한 미래를 상징하는 시간대에 대한 상상이라고 여겨졌다.

그런데 21세기가 됐고, 밀레니엄 버그는 수정 가능한 프로그램 상의 코드 문제였고, 우주 식민에 대한 탐사는 계속되지만 아직 인류가 살만한 별은 찾지 못했고, 지구 곳곳을 온통 천재지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인간 과학 문명의 식민지는 아직 지구별 하나뿐이다.

영화는 진작부터 SF라는 장르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그려왔다. 그 한 갈래는 외계와의 조우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갈래는 문명이라는 편도 열차에 올라탄 인류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상상의 현실화였다. 이들 두 갈래는 때로는 각각 한 가닥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갈래가 하나로 꼬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희망 또는 불안의 징후들을 미래의 모습을 빌려 투영해왔다.

그 양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영화가 그려내는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미셸 푸코(M. Foucut)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일자'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자'의 미래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을 특정한 형태로 질서 잡고 당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동일한 형태'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표상체계로서의 '에피스테메'가 미래에 대한 영화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작용하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날로 촘촘히 짜여가는 정보화의 그물로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시대의 징후는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 이래 유토피아로서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서의 미래로 그려지곤 했으며 영화 또한 암울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미래 사회에 대한 대개의 영화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껏 우리가 무수히 접해 온 신화나 설화의 서사구조 속에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테크놀로지의 세계를 놀라운 특수효과를 빌어 변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로드 워리어〉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좀 다르다. 영화 속의 미래는 오로지 특수 효과로만 존재할 뿐 아직까지는 실현 불가능한 테크놀로지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지난 문명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이제 어느 정도 낡은 것이 되어버린 조야한 고철덩어리의 세계이다. 휴머니티에 대한 회의, 파시즘화 되어가는 대중문화, '속도'의 이름으로 소비되는 현재의 문명을 황량한 원시적 풍경 속에 옮겨놓음으로써 정신이 상실된 현재를 가장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난무를 통해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블레이드 러너〉 또한 아주 낯익은 대도시 뒷골목의 풍경 속에 기존의 서사물들에서 무수히 되풀이되던 인조인간 이야기를 끌어들여 기억을 지배하는 권력에 의해 자기정체성을 확신할 수 없는 미래사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실존적 회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본의 지배 속에서 날로 물신화되고 관료화되어 가는 세계,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정보화의 그물 속에 소멸되어 가는 개인의 정체성 등 우리 시대가 품고 있는 위기의 징후들을 고발하기 위해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아주 익숙한 SF의 장치들을 빌어 가상현실로서의 미래를 만들어낸 것이다.

〈인터스텔라〉 또한 다르지 않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이제 아버지가 딸을 위해 옥수수를 거두어 먹이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지구에서 근대 이후 지배 가능하다고 믿어 온 담론들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한다. 근대 이후,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가령, 서울에서 더 가까운 곳은 한반도 정중앙에 있는 양구가 아니라 제주도다. 기차도 없는 양구는 차를 타고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을 가야 닿지만, 제주는 비행기를 타면 50분이면 도착한다.

〈인터스텔라〉는 인간의 문명을 가능하게 했던 농경이 불가능해진 지구에서 다시 농경을 통해 생존이라도 지속하려는 안간힘을 가장 근대적인 방식인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지금보다 더 새롭고 더 근사한 무언가에 대한 꿈 때문이 아니라 예전처럼만 살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싣고서 그냥은 넘을 수 없는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를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 돌파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가서 도달하는 곳은 〈혹성탈출〉이 그랬듯이 돌고 돌아 지구, 〈콘택트〉가 그랬듯이 지구에 나고 죽었던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공간을 넘어선 어드벤처를 통해 〈그래비티〉가 그랬듯이 자기 자신과 마주 선다.

〈인터스텔라〉 또한 오랜 SF의 계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우주여행이 결국 인간의 자아 성찰을 위한 도전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모험이었듯이. 그 모험에서 깨닫는 것은 식민 가능한 또 다른 행성이 아니라 이토록 황폐해진 지구에 대한 책임이다. 〈인터스텔라〉는 이 거대한 우주의 별과 별 사이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지구이고, 가장 위험한 생명체가 인류이며, 가장 안타까운 관계가 가족이고, 가장 모르겠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영상 에세이다.

다시 푸코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기존의 담론을 전복하고 그것에 의해 은폐되고 억압된 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강제하는 실천을 넘어서려는 비판적 문제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들은 그 결말이 확실할 수 없는 열린 구조로 끝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주인공은 화두를 놓지 않고 윤회를 거듭하며 과거에서 미래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수행의 길을 계속하는 것이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⑤

1. [보기] 중 불교의 인간관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수기(修己)와 수양(修養)을 강조하며, 고도의 수양을 쌓은 사람을 군자(君子), 또는 성인(聖人)이라 부른다.
ㄴ. '인간이 현실적 고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하는 인생론적 입장에서 인간을 조명하고 있다.
ㄷ.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있으며, 규범적 측면에서 인간다움을 찾으려 하고 있다.
ㄹ.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부여받은 중간적 존재자로 본다.
ㅁ. 인간의 심성은 본래 맑고 깨끗한 것으로 보았지만,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고통[苦]'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① ㄱ - ㄷ ② ㄱ - ㅁ ③ ㄴ - ㄹ ④ ㄴ - ㅁ ⑤ ㄷ - ㄹ

해설 : 12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ㄴ.'은 인본주의적 종교로서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거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한다'는 불교의 기본 교리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리적이다.
② 부처님의 가르침은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
③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④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다.
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증적·과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설 :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은 삼법인 중 제행무상과 관련된 가르침이며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사상은 연기법을 가리킨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그럼으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사실과 관찰의 내용이기에 제행무상과 연기법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현실에서 실증된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독자적인 것도 없기에 모든 존재와 단절된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불교 경전에도 신이나 하늘나라에 대한 서술이 많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의 경전에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지만 숭배나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② 불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다른 존재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불교는 인간만을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는 무시해도 된다.
④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수행의 단계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⑤ 외부에 존재하는 신은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일 뿐, 인생의 지배자나 창조주는 아니다.

해설 : 불교에는 신을 포함한 다양한 신비적 존재(예시 : 용, 아수라 등)를 말하나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거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불교에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만이 고귀해서가 아니라 인간세상이 고통과 즐거움이 적절한 상태이기에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 깨닫기에 다른 세상의 존재들보다 나은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2번 문제 참조.

4.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출가수행자가 아니라 재가 불자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②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간다.
③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어른과 아이, 지식의 수준, 재산소유의 정도는 상관이 없다.
④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성품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으며 군장병 불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⑤ 깨달은 분은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며, 앞으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해설 : 불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믿기에 재가 불자 및 어른과 아이, 지식의 수준, 재산소유, 군장병이라는 것이 깨달음을 얻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간다.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깨달으신 분(과거불)이 있으며 앞으로도 깨달을 존재(미래불)이 있다.

정답 : 1.④ 2.④ 3.③ 4.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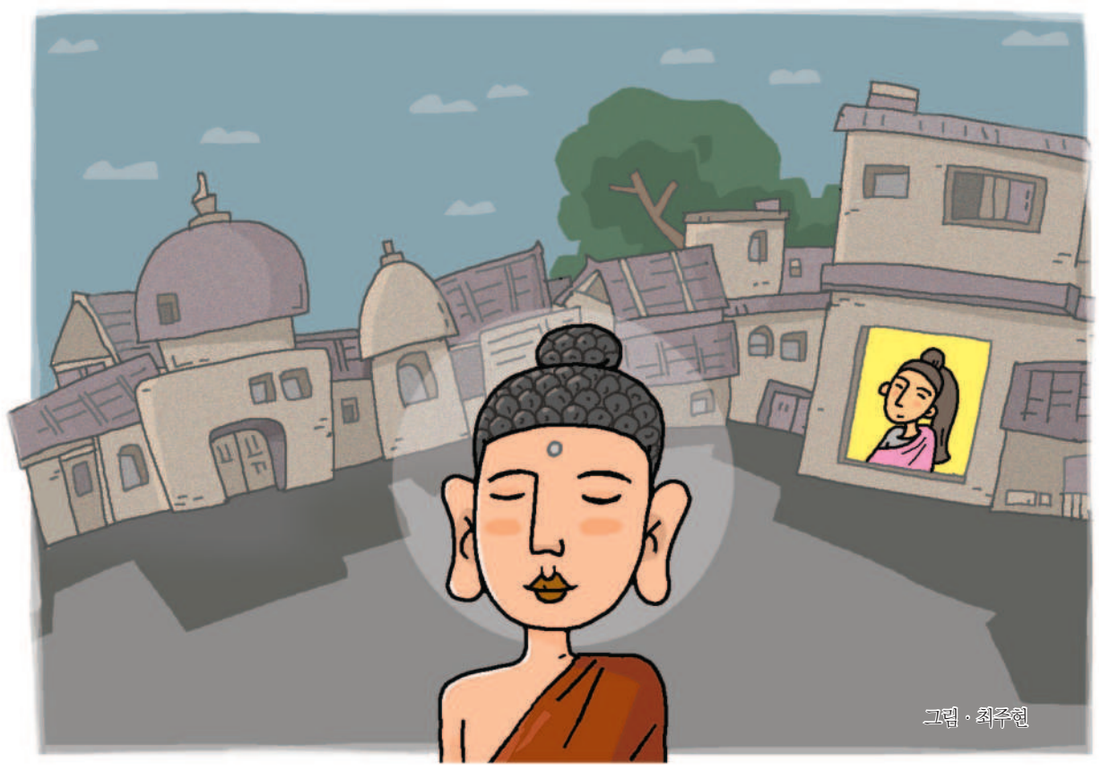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❸ 부처님 일대기를 읽자(2)

▶한줄 요약
야소다라의 '덕'은 무엇인지, 부처님에게 세속의 삶이란 게 무엇이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곰곰 되뇌는 일! 이보다 더 진한 불교공부가 또 있을까.



"야소다라를 가만히 놔두세요"


그림 · 최주현

부처님 정각 이후 찾아간 카필라국
야소다라 "덕이 있다면 날 찾을 것"
제자 대동하고 아내에게 간 부처님
8년 만의 재회, 아내는 조아려 울뿐
마지막 갈망 내려놓길 기다린 뒤에
부처님, 아내에게 전생담을 설법해

보리수서 일어선 젊은 부처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자,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붓다라고 불릴 뿐입니다. 붓다가 되기 이전과 되고 난 후 그 위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전에는 한 소국가의 왕자였고, 열반의 경지를 얻을 수 있을까를 모색하던 구도자(보살)였다면, 이제 그분은 붓다가 됐습니다.

붓다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진리를 나눠준 대상은 아시다시피 5비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함께 고행을 하다가 자신의 고행포기에 실망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다섯 수행자들입니다.

부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고집멸도 사성제 법문을 들려주고 그들을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게 했다는 일화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마을로 탁발 가서 음식을 얻어오면 나눠 먹고, 그 다음엔 다른 몇 사람이 음식을 얻어와 나눠 먹으며 그렇게 긴 시간 진리를 이야기하며 지냈지요. 붓다가 되어서 첫 번째 안거를 이렇게 5비구와 보냅니다. 교주가 있고 그 제자가 있고 법의 대화가 있으니 지구 역사에 삼보라는 것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붓다는 마가다국의 가장 훌륭한 수행자요, 바라문인 가섭 삼형제를 만나러 길을 떠났고, 그 삼형제를 교화하면서 두 번째 안거를 보냈습니다.

어떤 경전에는 가섭 삼형제를 가리켜서 제일 큰 형인 우루벨라 가섭이 120세, 둘째 형인 가야 가섭이 100세, 셋째 나제 가섭이 80세라고 합니다. 정말 그 시절에 그렇게까지 장수할 수 있었을까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 삼형제는 계급도 최상위인 바라문이요, 숲속에서 지내며 불을 섬기면서 사제로서의 의무에도 매우 성실해서 마가다국에서는 으뜸가는 정신적 귀의처였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계급으로 보나, 세력으로 보나, 심지어 나이로 보나 고타마 붓다는 한참 밀리는 처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세속 계급은 바라문이 아닌 크샤트리아였고, 고국 카필라국도 강대국이 아니며, 나이 또한 이제 겨우 서른여섯입니다.

나는 부처님 일대기를 읽어가면서 자꾸 그분의 세속 나이를 떠올리는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서른여섯 살의 젊은 부처님은 120세, 100세, 80세 바라문들을 교화하였고, 나아가 강대국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을 만나 그를 교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발길은 고국으로 향합니다. 카필라바스투! 아버지 숫도다나왕(정반왕)이 이제나 저제나 목을 늘이며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고향에 도착해서 핏줄인 석가족을 교화하는 이야기는 여러 책에 등장하고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옛 아내를 찾아가는 에피소드가 그렇게 흥미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면 짝을 찾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보통의 삶이지요. 이런 보통의 삶에서 튕겨 나간 싯다르타가 몇 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금의환향이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만남이 참으로 편안치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옛 아내 야소다라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참으로 절절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보면 "아이고, 야소다라!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나요? 그리고 어떻게 남편을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냈나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야소다라

고국 카필라바스투를 찾은 부처님은 성으로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다니며 탁발을 합니다. 그런 '아들'을 말리며 제발 궁에 와서 예전처럼 지내라고 아버지 정반왕이 만류하지만 부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왕의 혈통 일이고, 지금의 이 탁발은 부처님 혈통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들어가 아침공양을 받습니다. 왕궁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진귀한 볼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겠다는 마음보다는 예전의 그 왕자마마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더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직접 대하면서 그 호기심은 존경심으로, 존경심은 신심으로 변해갔지요.

부처님의 왕궁에서의 식사는 무사히 마쳤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야소다라입니다. 옛 아내입니다. 궁중의 여인들이 진즉에 몰려가서 청했지요.

"왕자님이 돌아오셨어요. 궁에서 식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야소다라님도 나아가서 절을 올리셔야지요."

하지만 야소다라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덕이 있다면 왕자께서 나를 찾으실 것이다. 그때 나는 절을 올리겠다."

이런 마음이 통했을까요?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우를 부왕에게 맡기고, 옛 아내의 거처로 향합니다. 나는 부처님 일대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궁궐 저기 안쪽에서 자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함께 자식을 낳은 사이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전부였지만, 이제 그런 남편은 없습니다. 세속의 달콤한 욕정은 이미 넘어섰고, 혈연과 지연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 또한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붓다'라는 존재가 되어 수많은 구도자들의 정신적 스승이 되어버렸는데, 아직까지 궁궐 복도 저기 안쪽에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야소다라의 말이 흥미롭지 않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이라거나, "옛정을 생각해서"라는 말이 아닌, "내게 덕이 있다면"이라는 그 말!

부처님은 그에 호응하여 몸을 일으켜 그녀의 방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 말은 야소다라가 그저 한 남자의 옛 아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처님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오게 할 만큼의 덕을 쌓은 사람임을 부처님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또 살짝 호기심이 동합니다. 그때 모여 있던 모든 궁궐 안 사람들은 얼마나 야릇한 호기심에 빠져 들었을까요? 부처님 나이 37세라고 생각합니다. 젊다면 아주 젊은 나이이고, 그렇다고 풋내기 청춘 시절은 아닙니다. 젊은 부처님이 옛 아내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가 아니었지요. 제자 두 사람을 대동하고 들어갑니다. 사리불과 목건련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거의 동년배로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마음공부를 충실하게 해온 구도자입니다.

야소다라의 방으로 들어가다

부처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야소다라는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그러다 정작 부처님이 그냥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도 분명 일었을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자신을 향해 천천히 곧바로 다가오는 '옛 남편' 싯다르타를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온몸을 그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8년을 억눌러 온 온갖 상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 흘렀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와락 안고 싶었겠지만, 낯선 두 성자가 곁을 지키고 있기에 야소다라는 그저 엎드려 부처님 발을 부여잡고 흐느끼고 또 흐느낄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야소다라가 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는 〈자타카〉에 담겨 있습니다. 경전에는 야소다라가 눈물바람이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 그렇게 읽힙니다. 그 모든 감정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법일 터이니 야소다라는 분명 그 모든 회한을 부처님 발을 어루만지며 다 토해냈을 것입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까요? 아니, 위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각자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옛 아내의 마지막 갈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준 부처님은 이윽고 부부의 전생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가만히 등을 돌려 두 제자와 방을 나섰다지요. 그리고 훗날 야소다라는 부처님을 찾아 구도자로서 일생을 마쳤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을 때 나는 자주 멈춰 섭니다. 복덕과 지혜가 원만구족한 찬란한 태양 같은 부처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인간적인 이런 만남을 만날 때면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 일대기는 쉽게 읽힙니다. 그래서 책 한 권 뚝딱 읽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심오한 말씀 한 자락이니 그걸 들려주는 경전을 소개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야소다라의 '덕'은 무엇인지, 옛 남편 싯다르타는 왜 그리 매정하게 옛 아내를 안아주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떠나가는지, 부처님에게 세속의 삶이란 게 무엇이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곰곰 되뇌는 일! 이보다 더 진한 불교공부가 또 있을까요? 부처님 일대기를 읽읍시다. 천천히!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여러분은 지금 살아생전에 이 도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한다면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소립니다. 전부 바깥에서, 지금도 거기 싸우는 나라 어딥니까. 거기 대통령이 말하는 데도 "우리는 알라신이 이기게 한다." 그러고는 "저렇게 악인들은 다 떨어진다." 즉, 죽는다 이거죠. 조그마한 쿠웨이트가 기름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삼분의 일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적다고 그냥 뺏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부처님인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페만'이 아니라 '패망'이죠.

마음 한생각에 이렇게 고달프게 살게 만들어 놓고, 이끌어 주는 대변자가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때 저건 종교적인 설법도 아니고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나? 그러니까 칠 년이나 싸웠지.' 이런 생각이 듭디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그러는 동안에 그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고생이 되듯이.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 마시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탓을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의 탓을 하지 말고 또 자기네 이웃을 탓하지 말고 자기부터 돌아다보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자기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바닷물이라면 나도 바닷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종지라면 나도 종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한 생각을 해도 '에이, 그게 될까?' 이러는데 관습에 젖어 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실험을 못 하고 체험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면서 그대로 실상이면서 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관습 때문에 그만 망가지는 거죠. 관습으로 인해서 착이 붙고 욕심이 붙어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자기가 자기를 밝게 못 보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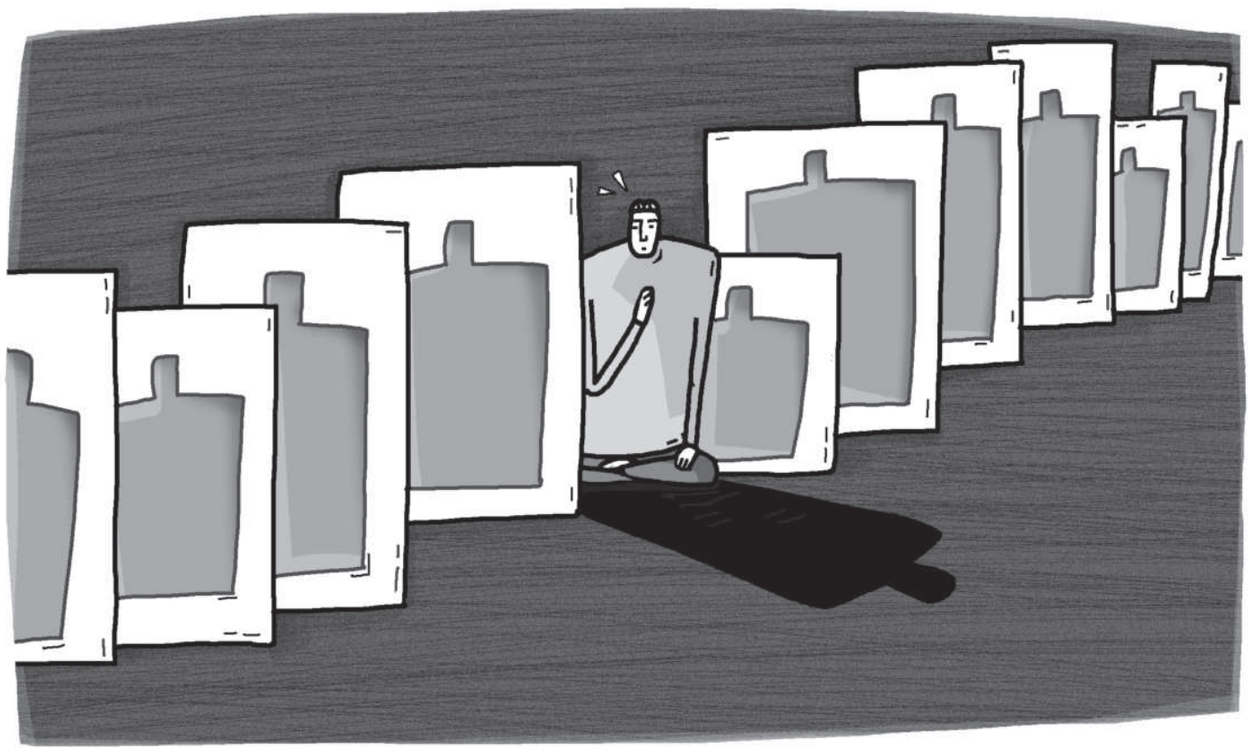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수화풍이라고 허무하게 생각 마시고 고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수화풍은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이 되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나한테 갖추어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의 불바퀴를 마음대로 굴려서, 체 없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나와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은 한계가 없죠. 부처님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그러하죠.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혼자만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먹을 수 있다면 음파가 튕겨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파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참 여러분이 갸륵합니다. 모른다 안다를 떠나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다가 된다면 더러운 거 깨끗한 거, 파도다 물이다 이런 이유가 붙지 않고, 폭포수가 내려가면 그냥 모여서 바다가 되는데 더러운 물, 핏물, 고름물 한데 합쳐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이름해서 그것도 젖는 것뿐이겠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게 붙으면 그것은 벌써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니깐요.

그래서 옛날에도 선지식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구(死句)를 따지는 사람들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이고 활구(活句)를, 이름해서 그것도 아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타고 피리를 가진 자라고요. 그렇게 되면 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기 이전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할 때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불 반짝하는 그 찰나밖엔 없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도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요. 그냥 영원한 오늘이에요, 오늘. 그런데 오늘이라는 그 자체도 없다는 얘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툰다, 화해서 나툰다, 공해서 나툰다. 이러니까 한생각이, 금방 이런 생각이 돌아갔다 금방 저 생각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망상은 끊어야 된다." 이러거든.

아니, 산 사람이 그게 끊어집니까? 끊어서 끊는 게 아니죠. 컴퓨터에, 즉 말하자면 숙명통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과거에 입력된 것이 지금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걸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서 놓는 작업을 한다면 그래도 망상은 망상대로, 아니, 망상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관여할 게 없죠. 그걸로 인해서 부처를 이루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게요. 목석이면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목석일 뿐이지.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관습도 두지 마시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좌선이나 입선이나 또는 묵조선이나 간화선이나 와선이나 행선이나 이런 것이 모두가 둘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이름해서 참선입니다. 여러분이 변소에 가서 똥을 누는데 여러분이 각자 변소에 가니까 거기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왔으니까 법당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다 하되 그 모든 것을 어떤 놈이 하느냐는 얘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다스릴 줄 알고,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줄 알고, 그렇다면 행을 그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유인이라는 소리를 듣죠. 이름해서 부처라 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이 '부처, 보살' 이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첫째, 사람이 돼야 하고 둘째, 가정에서도 잘 다스려야 하고 셋째,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을 잘할 수가 있고 올바로 갈 수가 있고 진실하게 갈 수가 있고, 얼토당토않은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만 보고 듣는데 어찌 이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독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죠. 학교에다가 맡겨 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요. 바로 2세, 자긴데요. 자기입니다. 더 발전을 해서 내 2세는 더 올바르게 진실하게 똑바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기를 길러 주는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를 떠나서, 이 불교라는 거는 어디 한 귀퉁이에 국한되어 있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고 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교(敎)입니다. 바로 우리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만 아시지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망가지고

☞ 2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모두가 천국으로 보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부숴지고 죽고 이러는 거는 모르시죠? 아니, 생각을 하면서도 행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러니 그러한 불바퀴 속을 뛰어넘질 못해서 이승 저승을 왕래를 못 하니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열반의 맛을 알아야지, 만약에 그 맛을 모른다면 죽어서도 그 차원밖에 안 돼요. 지게꾼 하던 사람은 지게꾼으로만 살게 돼 있고, 어느 회사의 종업원이라면 종업원, 기술자라면 기술자, 정치인이라면 정치인, 과학자라면 과학자, 자기 분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모르면 안 되죠.

모든 천체가 한마음에서, 즉 말하자면 사랑도, 자비도 과학도 물리학도 천체물리학도, 천문학도 지리학도 의학도 모든 게 이 한 보배, 한 가운데서 다 부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LA지원 개원식에서 하버드 박사가 "스님은 그 한 군데서 그렇게 나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으로 인해서 내가 연구를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알래스카에는 박사가 한 댓 분 되는데요, 그 박사들은 심리학이니 의학이니 아무튼 여러 분야에서 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전공 분야에서 모두 마음으로 하니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납득이 가는데 왜, 여기 사람들은, 허허허, 그러냐 이거죠. 요만한 거 하나라도 철두철명하게 지켜나가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더 많더군요. 여기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걱정이죠. "네가 알면 얼마나 알기에, 참 흉내 꽤 잘 내는구나!" 이러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자기를 좀 돌아다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보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메스껍게 생각하고 남을 깔보는 마음, 아상, 아만 그런 것이 많으니 바로 자기를 죽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우린 풀 한 포기도 업신여길 수가 없죠. 여러분 배 속의 그 촌충이 바로 하나의 증명이 된 셈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이 인간까지 왔다는 증명을 해준 겁니다. 오장육부의 그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있는 자체를 보십시오. 그게 운행을 해 줘야만이 여러분이 움죽거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또 살 수도 없죠. 그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전파가 오고 가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땅바닥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 없습니다. 모든 게 두절되고 말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옛날에 가져온 그 비극적인 역사 이런 거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좀 새로이 새 맛이 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함부로 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일일이 요렇게 찍어서는 열쇠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너무 높은 거는 낮추고 너무 낮은 것은 올리고 하는 그 마음, 한마음의 도리에 지혜로운 폭넓은 마음, 그런 큰 그릇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뜻을 갖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통일도 될 수 있고요.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을 다루면 몸도 다룰 수가 있거든요. 세계를 움죽거리게 하는 것은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듣고 보고, 또 인공위성을 띄워서 두루 하고, 전파를 통해서 다 듣고 이러면서도 그걸 파악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워서 자꾸자꾸 지금부터라도 그냥 놓는 작업을 하신다면 그 뜻을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 하나하나.

그렇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면서 가정과 모든 데서 화목을 깨트리지 마시고 그저 자녀들을 기르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아휴,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었을꼬.' 하고 후회를 하면서 아마 착한 2세들이 될 겁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요. 그것처럼 질질질질 물이 새니깐 남들을 모두 얼리고 빙판을 만들고 그러니 전부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고 다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집 한 집, 한 사람 한 사람이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셨구나. 우리들이 관해 보고 우리들이 관해 듣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이름 아니냐. 우리들을 떠나서 관세음보살이 어딨으며 지장이 어딨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무와 나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서로 이어서 열매를 맺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서 말입니다. 저 건너편의 나무 한 그루가 이쪽 건너편의 나무 한 그루와 사랑을 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시죠? 이것이 바로 전파 아닌 전파죠.

마음을 이어 가는 전파인데, 지금 남편이고 애들이고 그렇게 속을 썩여도 '허허, 주인공은 전력이 둘이 아니니까 불 들어오는 거는 전력만 있으면 다 들어오겠지.' 하고 맡겨 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아들이 다 자식이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 것이 가설이 아니냐. 그럼, 네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게 그저 당신밖에는, 둘이 아닌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하겠구나 하고 맡겨 놓는 작업을 할 때 벌써 다들 전파가 되거든요.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인등이 켜지게 돼 있거든.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니 스스로 자기가 자길 다스리게 되죠. 이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것도 자기가 나쁘니까 나쁘게만 보거든. 그러니 나쁘게 보지 않고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좋게 돌리면 좋게 돌아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가정에도 화목이 오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나가서도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 남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모두가 천국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모두 악으로써 병이 들면 모든 게 악으로만 보이고 도둑놈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도둑놈이면 어떻고 도둑놈 아니면 어떠랴. 나 걸음 걷는 거, 다스려 가면서 올바로 진실하게만 꾸준히 걸어갈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만났던 사람, 인연 됐던 사람이 스스로 언젠가는 착해지고 언젠가는 그런 걸음을 다 떼어 버리거든요. 더디고 이르고 그뿐이지.

만날 했던 소리 하는데도 이렇게 찾아주시니, 그저 '저 못난 스님도 나 못난 거려니.' 하고 찾아주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저 못난 사람들끼리 못났든 잘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거지든 부자든 그거를 떠나서 우린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니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서 공부해 봅시다. 또 내부적으로 한마음으로 틀어 놓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탈이 되죠.

이 몸속에 있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쳐서 십오억이라고 한다면 벌써 오십억이 되고, 오십억이 된다면 그 속에 또 속이 있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 여러 의식들을 한생각에 전부 이끌어서 바로 내 한 마음이 돼 준다면 몸 건강한 거야 뭐, 이를 데가 있겠습니까? 가는 날까지는 틀림없이 건강하게 살 테죠. 가는 날까진요. 이 몸이 헤지면 또 다른 걸로 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

어느 선사께서 어느 하인으로 사는 사람의 시주를 받고서 너무 감탄해서 그만 그 이튿날에 몸을 바꿔 줬죠. 신라 때 불국사를 지은 김대성이처럼요. 그래서 금방 몸을 갈아서 정승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 가지고 관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건져 주게 했더래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요 몸을 가지고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몸 가졌을 때 이 도리를 다 배워야지 이 몸이 없으면 공부도 못 해요. 아까 영화 얘기 한 것처럼 그 짝이 나죠. 살아생전에 나투고 응해 주고 그렇게 벗어나서 불바퀴를 굴릴 수 있어야 바로 그게 이름해서 열반이지, 그리고 자유인인 것이지 아, 살아서 그걸 못 벗어나는데 죽어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네?

그러니 언제나 자기 자신을 떠나서 맹종하지 마세요. 부처가 있더라도 그저 자기 몸과 같이만 생각하세요.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내 불쌍한 것같이만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나같이만, 못났든 잘났든 나같이만. 그렇게 모두 둘로 보지만 않으신다면 모든 게 자비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실천하고 행하실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소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를 본다 하더라도, 죽는 걸 본다 하더라도 길 오다가 다 한생각에 그냥…. 보는 순간이지 그거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다고. 보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찰나지. 그러니까 무슨, 저걸 살려야지, 건져 줘야지 그런 거 생각할 사이도 없다고요, 자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나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그 도리를 알았겠습니까? 나는 저 산천초목, 풀 한 포기, 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하! 너희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이 도리를 알았을까. 너희들이 다 스승이고 돌 하나 스승 아닌 게 없구나. 천칠백 공안이라고 예전에 선지식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천칠백 공안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화두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내가 몸이 세상에 태어난 게 화두라는 걸 아시고, 내가 나온 게 수박이라면 그냥 무조건 잘라서 잡숴 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그 씨를 또 심어서 모든 중생들을 먹이고도 되남을 테니깐요.

그럼 오늘 부처도 중생도 둘 아닌 도리라는 그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이라크 문제들을 가지고도 더 퍼지지 않게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마음을 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국민 된 도리요, 세계적인 인간의 도리요, 한마음의 도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1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화두라는 걸 아시고
내가 나온 게 수박이라면 그냥 무조건 잘라서 잡숴 보세요.
그러면 그 씨를 또 심어서 모든 중생들을 먹이고도 되남을 테니까요.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③ 구하는 마음이 곧 괴로움

도둑맞은 옥수수, 본래 내 것은 없다

한겨울인데도 마트에선 진공 포장된 옥수수를 만날 수 있다. 옥수수를 보니 몇 해 전 추억이 떠오른다. 밥보다 떡이랑 옥수수를 더 좋아하시는 친정엄마께서는 집 앞에 옥수수를 아주 많이 심으셨다. 풍성한 수확물을 기대하고 열심히 관리하면서, 옥수수가 자라는 모습을 기다리셨다. 드디어 내일은 옥수수를 따는 날이라고 하셨고, 커다란 옥수수 자루를 밭에 갖다놓으셨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루를 바라보며 엄마께서는 들떠 있으셨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누군가 옥수수를 다 따서 자루째 가져간 것이다. 단 한 개의 옥수수도 남겨두지 않고 그 많은 수확물을 모조리 다 가지고 간 것이었다. 엄마는 무척 속상해하셨다. 매일매일 실해져가는 옥수수를 바라보며 맛있게 먹을 생각에, 그리고 자식들 나눠줄 생각에 흐뭇해하셨는데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그때 나는 엄마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엄마, 그 옥수수는 엄마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이었나 봐요. 누군가 가져가서 잘 드셨을 테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시자구요. 보시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께선 곧바로 "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거지!"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한아름 사다드렸던 기억이 난다.

살다보면 이렇게 무언가를 잃게 되거나 남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것 같을 때가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 그럴 때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고, 세상을 향해 하소연하고 싶은 속내가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그러나 불자는 인과를 믿고 인연법을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내 앞에 벌어진 모든 일을 부처님의 법문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

엄마께는 달마대사의 이입사행관 법문을 전해드렸다. 살면서 원망심이 날 때에 많은 도움을 받는 법문이다.

수행자는 괴로움을 겪게 되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여야 한다. '내가 지난 옛날부터 셀 수 없는 세월동안 근본은 버리고 사소한 일을 좇으며 생사의 물결 속을 윤회하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원한과 증오가 있었을 것이며,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일 또한 없겠는가? 지금 비록 내가 저지르지 않

손해 입고 하소연하고픈 내 마음
불자라면 인연법으로 받아들여야
'구하지 않음'이야말로 참된 도행

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지난 세상에 나에게 잠재하였던 재앙이며 악업의 열매가 익은 것일 뿐이다. 하늘이나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괴로움을 달게 받으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경의 말씀에 '괴로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은 막힘없이 통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이런 마음이 날 때에 이치와 맞아 떨어져서 원망을 바탕으로 도를 닦아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원망을 갚는 행[報怨行]'이라고 하느니라.

중생은 본래 실체가 없다. 생명이 인연을 맺으면서 바뀌는 것이니 비록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받지만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생긴다. 어쩌다가 좋은 과보를 얻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는 내가 과거에 씨를 뿌린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지금은 얻었다고 하지만 인연이 다하면 없어지고 말 것인데 무엇이 기쁘겠는가? 얻고 잃음을 인연에 따르면서 마음에 더하거나 덜함이 없고, 기쁨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도를 따르는 것이다. 때문에 '인연에 따르는 행[隨緣行]'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은 혼미하여서 가는 곳마다 탐착만을 구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에 언제나 한 마음을 돌려 먹는다. (중략)모든 현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쉬고 따로 구하지 않는다. 경의 말씀에도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움이고, 구하는 것이 없으면 즐거움이다[有求皆苦 無求乃樂]'라고 하셨다. 구하지 않음이야 참된 도행(道行)이 아니겠는가?

구하고자 하는 나를 나무아미타불 염불로 항복받으라고 하시며, 금강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신 한탑 스님께서는 저서 〈금강경법문〉에서 이렇게 강조하셨다.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을 남김없이 항복해야 합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오직 부처님생명만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다는 부처님의 무한한 법문을 듣는 것이 염불입니다. 염불은 내가 부처님을 불러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신 소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심이 되는 법문이다.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오늘도 그저 부처님이 불러주시는 소리를 잘 들을 뿐이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⑨ 척추 퇴행

퇴행은 숙명…증상 호전이 치료 원칙

척추 협착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왜 가는 병원마다 진단과 치료가 다른가'와 '척추에 퇴행이 생겼다는데 도대체 퇴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다.

흔한 척추질환(염좌, 추간판 파열, 협착증 등)은 대부분 퇴행으로 인해 발생한다.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다.

그렇다면 퇴행(degeneration)이란 무엇인가? 각자의 차이가 있겠으나, 발생학적으로 인체의 성장, 노화 과정은 세포에서 시작해서 출생 후 20세 경 신체적으로 완성되고 서서히 소모 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즉 새 기계인 상태에서 사용하면 할수록 닳듯이 보통 20세 이후의 여생은 쓰일수록 계속 닳게 되어있고 그런 과정을 퇴행이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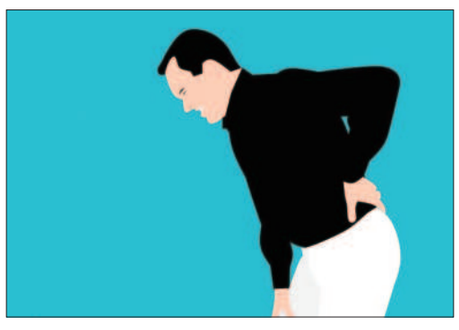
그렇다면 질병(disease)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란 나이와 관련 없이 신체의 정상적 기능, 구조의 장애로 생기는 일련의 증상을 말한다.

오랜 시간 전에 평균 수명이 길지 않던 시대에는 퇴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퇴행이 실제로 통증으로 삶을 괴롭히게 될 만큼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요새는 기대여명이 80세를 넘어가기 시작한 만큼 퇴행은 피할 수가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이가 같다고 같은 정도의 퇴행이 진행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기계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상태가 천차만별이듯이 척추의 퇴행 또한 마찬가지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질병과 퇴행의 개념이 약간 다르기에 치료의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척추질환(디스크 질환, 협착증 등)을 가진 환자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 모두 다른 답을 들을 가능성이 많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오해를 하기 십상이다. "왜 나는 증상이 동일한데 병원마다 말하는 것이 다르지", "잘 모르는데 왜 나보고 치료법을 선택하라 하지"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대표적인 반응이다.

이는 퇴행성 질환의 특성 때문으로 통증의 원인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호전을 위한 것이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궁금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왜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만 주고 통증만 없애려 하나?"에 대한 것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행 자체는 나이가 들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퇴행 자체를 되돌리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생긴 디스크, 협착증은 증상이 생기면 처음에는 진통제를 투여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효과가 없



으면 주사치료(신경차단술 등)를 하고, 시술(신경성형술 등)을 시행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하는 식으로 단계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단이 된다고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현재의 척추 상태 및 치료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이 부족할 때 환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치료, 과잉 치료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 퇴행성 척추질환(디스크, 협착증 등)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고, 필요한 검사는 진행해야 하며, 단계적인 치료과정이 중요하므로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것 보다는 잘 맞는 병원을 선택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퇴행성 척추질환은 무조건 질병이 아닌가? 물론 퇴행성 척추질환이 질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추간판 탈출이나, 협착증으로 인해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이다. 아프고, 저린 것을 떠나, 감각이 떨어진다던지, 대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퇴행보다는 질병으로 보고 빠른 치료를 요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라면 단계적 치료보다는 바로 손상 받은 신경을 회복하기 위해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으로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척추의 퇴행성 질환은 어떤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 것일까? 척추의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곳은 매우 많다. 수많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척추·관절 전문병원, 대학병원, 한의원 등등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일반적인 가벼운 증상이라면 어디로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주사치료만 주로 하는 곳이라든지, 수술적 치료만 하는 곳이라든지, 혹은 물리치료와 약으로만 치료하는 곳은 척추 퇴행성 질환의 치료 원칙인 단계적 치료의 관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척추의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속한 정밀 검사가 가능하고, 물리치료, 투약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치료,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을 이용한 신경 확장술, 고주파 수핵 용해술 등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및 양방향 내시경 등 최소 침습 내시경 수술, 정밀 유합술 등의 수술이 모두 가능한 척추 전문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중복, 과잉 치료를 방지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으로 척추의 퇴행이 있다고 병이 생긴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 상태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척추를 치료하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며, 처음부터 정밀 진단이 가능하고, 운동, 물리치료 등 가벼운 치료에서 내시경 수술, 고난이도 수술 등이 전부 가능한 의료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홍준
거인병원 척추클리닉장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3+3 소비자가 ~~₩297,000~~ 63%할인 ₩109,890 총 240매
5+5 소비자가 ~~₩495,000~~ 68%할인 ₩158,400 총 40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 강연 영상이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YouTube 심영세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MZ세대 스님들의 대학생 템플스테이

얼마 전 최초로 영남지역 대학생 연합 템플스테이와 수계법회가 통도사에서 봉행됐다. 그동안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대학생들의 동아리 연합 템플스테이나 연수를 염원하고 희망했던지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나도 한때는 호기심과 열정,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용기로 청춘을 살았다. 배고픈 불교학도들에게 공양을 손수 챙겨주며 따뜻하게 보살펴주시는 스님들의 마음에 감화되어 그 시절에 금강경 육조단경을 접하고, 결국에는 출가도 하게 되었다. 이제 어른이 되어버린 내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통도사로 들어가니 20대로 돌아간 마냥 들뜨기도 했다.

74명의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도사 1박 2일. 모든 일에 정적이면서도 여법과 위의를 중시하는 스님들과 발랄하고 숨길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는 동적인 젊은이들의 흥미진진한 절집 만남! 입재식에 이어진 저녁공양 시간엔 밥과 두부를 한 대접을 가져다 먹으며 대화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온 도량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추적추적 비 내리는 전각의 처마 밑에서 학인스님들이 울리는 사물 소리, 그리고 통도사의 예불은 더욱 장엄했다.

어느새 스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템플스테이 사무실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유대감을 높이고 부드럽게 프로그램을 이어가야 하다 보니 다들 같은 고민이 생긴 것이다. 레크리에이션 역할이 무엇보다 큰 이때, 우리는 포교국장 신경 스님을 필두로 6개조를 구성해 각 조마다 스님이 한 명씩 들어가 소통하며 간식시간에 학생들끼리 화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기로 했다. 마지막엔 친목을 도모하며 상품을 건 스님들의 재밌는 OX퀴즈까지! 그렇게 스님들은 비좁은 템플스테이 사무실 탁자에서 머리를 맞대고 눈 깜짝할 사이 5개씩 문제를 만들었다.

엉뚱한 OX퀴즈 하나에 전법을 향한 열정과 진심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MZ세대 6명의 스님들과 한바탕 웃어가며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 수행자들의 진심어린 마음에서 비로소 대학생 전법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통도사 금강계단의 계단(戒壇)은 108개일까?' '통도사 처마 밑 단지에는 소금이 들었을까? 설탕이 들었을까?' '오늘 함께한 스님 중에서 누가 제일 어릴까?'

스님들끼리 먼저 편안한 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었을까. '스님들과의 차담'에서 대화가 길어지는 바람에 OX퀴즈를 할 여유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1박 2일 중 차담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답했다.

좋아하는 친구와 헤어진 뒤 슬픈 감정을 극복하고자 불교동아리를 들어온 친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싶어서 급하게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든 친구, 친구 따라 절에 온 친구, 타종교에 있다가 명상이 하고 싶어서 절에 온 친구 등 다양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템플스테이 참여는 그야말로 전법의 희망이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다가가는 '내 절친' 같은 불교야말로 대학생의 전법의 열쇠가 아닐까 싶다.



통도사포교소 웅장원 덕현 스님



송마나의 시절인연

찰나 속에서 영원을 본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다. 2024년 새해는 2023년의 끝에서 솟아 오른 찰나, 오늘은 어제의 끄트머리에서 터져 나온 찰나다.

찰나란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어느 직장을 다닐 것인지,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찰나다. 이 찰나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 병든 연인을 위해 자신의 귀한 장기를 떼어주고, 극한 상황에서는 자식 대신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찰나란 무서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찰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살아날 수도, 거품처럼 사그라질 수도 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하여 행동을 함부로 하면 세세토록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한 순간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면 어지러웠던 과거의 삶은 사라지고 희망찬 삶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순간에 허무한 생이 뜻있는 생으로 바뀌고, 죽어야 할 인생이 죽지 않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처럼 정신이 깨어나는 순간보다 값진 삶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땅 밑 정신의 새싹이 하늘 높이 떠있는 태양이 그리워 땅 위로 솟아오른 존재다. 시간과 공간을 헤치고 터져 나와 육체란 옷을 입고 도상을 걸어가는 미완의 한 점이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이지만 몸속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자신의 오욕(五慾)을 지배할 줄 아는 것이 정신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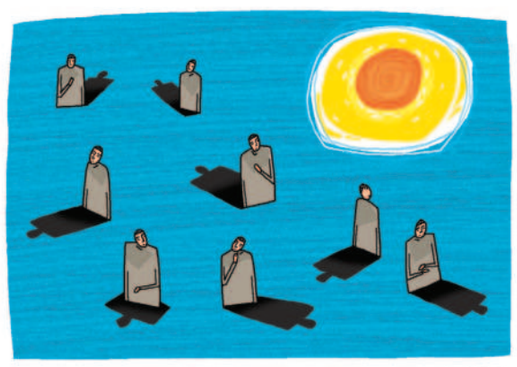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에 태어난 순간, 우리 마음속 광명한 정신의 빛 한줄기가 터져 나왔다. 육체는 조금 줄여도 무방하고, 빛나는 정신은 늘려 나가야 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은 깊어진다. 생각해서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생각의 끄트머리를 자꾸 터트려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생각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도 끝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나는 영원한 정신의 한 점이다. 영원한 불성(佛性)의 한 끄트머리다. 영원 전부터 이어 내려온 한 끝이다. 정신을 계속 키워나가면 어느 순간 자각을 하게 된다. 바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다. 찰나 속에서 영원을 보는 것이다. 영생이란 오랜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시간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순간, 시간을 초월하는 찰나에 있다.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언제 어디서나 영생이다.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때 영생은 그 실천 속에 있다. 진리의 세계는 실천의 세계다.

언제까지 뗏목이란 문자반야(文字般若)에 매달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만 들치고 있을 것인가. 진리란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법어(法語)가 되어 순간순간 깨어 행동하는 삶이 영생이다.

2024년 새해는 영원한 생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다.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외쳤던 찰나이다.

불사조(不死鳥)가 금빛 날개를 활짝 펼쳐 영원의 한복판으로 힘차게 날아가는 새해 아침, 유난히 푸르다. 우리 머리를 곧게 세우고 땅을 딛고 우뚝 서서 제 소리를 터뜨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작가〉

기자칼럼

굿즈 전성시대와 불교

박물관 굿즈를 좋아하는 후배 기자는 종종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온라인 상품관을 둘러본다. 후배 기자를 사로잡은 상품이 있어서인데, 2023년 뮷즈 공모 당선작인 '취객선비 3인방 변색잔 세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전 김홍도 필 평안감사향연도'를 활용한 것으로 잔에 차가운 술이 담기면 선비들의 얼굴이 붉게 물든다. 상품에 위트가 있다 보니 연일 매진 행렬이라고 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내놓는 굿즈의 지난해 매출액이 1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반가사유상 미니어처를 비롯한 여러 굿즈들이 꾸준히 히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온라인 상품관을 둘러보면, 불교 굿즈는 상당하다. 반가사유상의 경우 미니어처뿐만 아니라 방향제, 무드등, 인형 등 제품군이 다양하게 확대됐다. 또한, 보살좌상·금동판 부처·석굴암 본존불상·미륵사지석탑 미니어처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불교계도 송광사 자공 스님이 만든 '빨간목탁' '연꽃세상'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 등이 있지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수준으로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기획팀장은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유물재현품과 굿즈의 경계를 고객 수요와 트렌드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 또한 "불교 신자들을 위한 상품, 일반 대중을 위한 상품 등 고객층을 분리해 각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굿즈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불교계에 조언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사람이 40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의 질이 높아진 것도 한몫 했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박물관 굿즈를 구입하며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도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를 보면 잘 만든 불교 굿즈는 좋은 포교 방편이다. 굿즈 전성시대, 불교문화유산 활용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가 집어삼킨 다리…
남은 건 치료비와 병든 아버지

스리랑카 이주민 시란씨, 손가락 이어 다리마저 절단
4000만원 병원 빚 감당 못해 퇴원…하루 한 끼로 버텨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제대로 된 '불교명상' 포교가 필요하다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K-명상 보급으로 국민정신건강 치유 나서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올해 중앙신도회 임원단 신년하례에서 당부한 말이다. 이 당부의 저변에는 '명상 포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포교는 시대에 따라 그 방편을 달리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명상을 보급하는 것은 부처님 법에 맞는 여법(如法)한 포교 방편이다. 부처님이 행한 전법교화의 목적이 중생구제에 있기에 그러하다.

한국은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 국가다.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기 힘든 사회라는 의미다. 종교의 기본적 기능이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종교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종교의 생존 자체가 힘들 정도다.

사람들이 삶에서 종교를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고 떠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탈종교화라고 하는데, 한국불교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탈종교화의 사회구조에서 불교의 오랜 수행법인 명상을 통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안정시켜 정신건강을 치유해주는 것은 '무외시(無畏施)'의 보시다.

종교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중에서도 세상사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깨달음은 불안, 두려움, 공포와 같은 중생고의 해소이며, 그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 얻는다. 명상

"명상으로 국민정신건강 치유"
진우 스님 당부, 여법한 방편
정법 숙지해 명상포교 나서야

은 불교수행의 주된 방법이다. 그렇기에 불교가 명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는 것은 무외시의 보시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불교명상과 상업명상을 구분해야 한다. 상업명상은 심신치유의 힐링 차원 또는 여가 활동 차원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불교명상은 힐링과 레저를 넘어 근원적 고통의 해소를 위한 것이다.

마크 앱스타인(Mark Epstein)은 "불교명상의 영역에는 정신치료를 넘어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보통의 정신치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이해의 머나먼 지평을 향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불교명상이 자기 이해의 힐링과 치유보다 존재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상업명상의 붐(boom)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불교명상과 동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타의 명상은 유아(有我)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무아(無我)를 전제로 하는 불교명상과는 다르다.

즉 여타의 명상이 현세를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의 행복에 집착함에 비하여, 불교명상은 나를 버림으로써 영구한 이고득락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명상이 양적으로 성장하고자 상업명상의 붐 속으로 정체성 없이 달려드는 것은 오히려 불교명상을 쇠퇴시키는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총무원장스님이 선(禪)명상 보급으로 전법해야 함을 강조하기에 앞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숙지하고'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그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아무쪼록 총무원장스님의 당부와 같이, 한국불교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불교명상으로 전법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탈종교화 속에서도 불교를 찾아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절대 자비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붓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묘사하며,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苦聖諦)'라고 말씀하셨다. 성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레스와 마주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고통을 거부하고도 벗어날 길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피하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정부는 그 시점을 고심한다는 뉴스가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섯 번째가 된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겨움(혐오감, 증(憎))이다. 이 감정은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자신을 더럽히는 상황에 마주할 때 유발되는 정서로서, 그 대상을 피하려고 하고, 그 상황에 마주하는 것을 막는 행동을 하게 된다. 역겨움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학습하는 감정으로,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억누를 수 있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 양육과정에서 부모로서 자신의 아이가 내뱉은 음식물을 먹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식사 도중에 아이의 변을 보고 구토하는 부모도 있다.

국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
거부 통한 자기 방어 정서 '혐오'
진정한 치유는 '받아들임'서 시작

미시간 대학교 교수 윌리엄 밀러는 〈혐오의 해부〉에서, 혐오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양가적인 의미, 즉 아름다움은 더럽고 더러움은 아름답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는 혐오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자신을 더 높게 규정하는 감정으로, 계급·인종·민족의 구분을 자극할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붓다는 자기 자신의 몸 안과 밖에서 감지되는 것(내부감각, 외부감각, 고유감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리고 '느끼라'고 〈맛지마니까야〉 〈십지경〉 등에서 말씀하신다. 느낀다는 것은 그 감정이 무엇이든지 억압·회피·억제·표출·저항하는 대신에 그것이 일어나는지 몸에서 알아차리고, 일어나도록 놓아두며, 그 감정과 함께 있으라고 말한다.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 모든 감정은 우리 생존에 유익하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꺼릴 때 생겨나지만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저장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거나 번뇌의 원인이 된다. 문제는 고통이 사라져야 한다고,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자세이다. 우리가 고통을 없애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통이 장애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정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바로 보는 직접적인 절대 자비를 발휘할 때이다. 유가족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질 때이다. 우주는 우리에게 약속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조건에 따라서 존재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社 說

변화하는 태고종, 발전 기대한다

최근 가장 많이 변화를 시도하는 불교 종단을 꼽자면 단연 '태고종'이다. 태고종의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다. 상진 스님은 취임 초부터 초도순시를 통한 내부 소통과 지자체장, 정재계 인사 등과의 회동을 통한 종단 외연 확대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취임 후 처음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의 종책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확한 자기비판을 바탕으로 한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이 시스템이 아닌 임기응변식 종책을 펼쳐왔음을 지적했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국내에서만 활동해 왔음을 꼬집었다. 문제점을 알기에 앞으로의 방향도 명증했다. 내부로는 제도를 정비해 종단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 활용과 국제사업 전개로 종단 외연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종헌종법의 상호 충돌과 모순점 등을 중앙종회의 협조를 얻어 정비하는 한편, △용궁사 인천국제명상문화체험 전승관 건립불사 △태고종 유·무형 문화재 정밀조사 △태고종 영산재 해외 공연 등을 추진해 종단 내 문화유산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군승 파송을 비롯한 군포교에도 적극 뛰어든다는 복안도 내놨다. 이미 미군 내 군종장교를 파견한 태고종은 주한미군 포교에도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다.

올해 태고종의 슬로건은 '미래를 열다, 조화와 화평의 세상'이다. 희망과 도약을 담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태고종이 열 희망과 도약의 미래가 기대된다.

출가자 장려, 범종단적으로 나서야

'출가절벽' 현상은 불교계에서 낯선 말이 아니다. 최근 10년 사이 출가자는 감소가 아닌 급감 수준이다. 2012년 212명이었던 출가자는 2022년 61명으로 무려 71%가 줄었다.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더라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한 해 출가자 100명 선이 무너진 것은 충격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해 종단 기구인 '출가장려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출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출가장려 사업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새로운 콘셉트의 출가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출가지도법사를 발굴·지원한다. 본사별로 출가지도법사를 둬 행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단의 출가 종책을 발 빠르게 현장에 실현해 발심출가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봉녕사는 제1기 여성출가학교 고불식을 1월 22일 봉행했다. 11명의 행자가 입교했으며, 이들은 한 달동안 한국불교 승가 생활 전반을 체험한다. 이날 입교한 행자들은 "출가행자의 성스러운 이 길을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출가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다. 탈종교시대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대자유인의 삶을 갈망한다. 이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지금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대행선사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

본 책자에는 선사께서 법회 때 읊으셨던 게송, 선법가 가사로 만들어진 선시,
편지글 속의 게송과 함께 친필 원고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가격: 20.000원 336쪽 엮은이_(재)한마음선원 출판부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적이야!

개정판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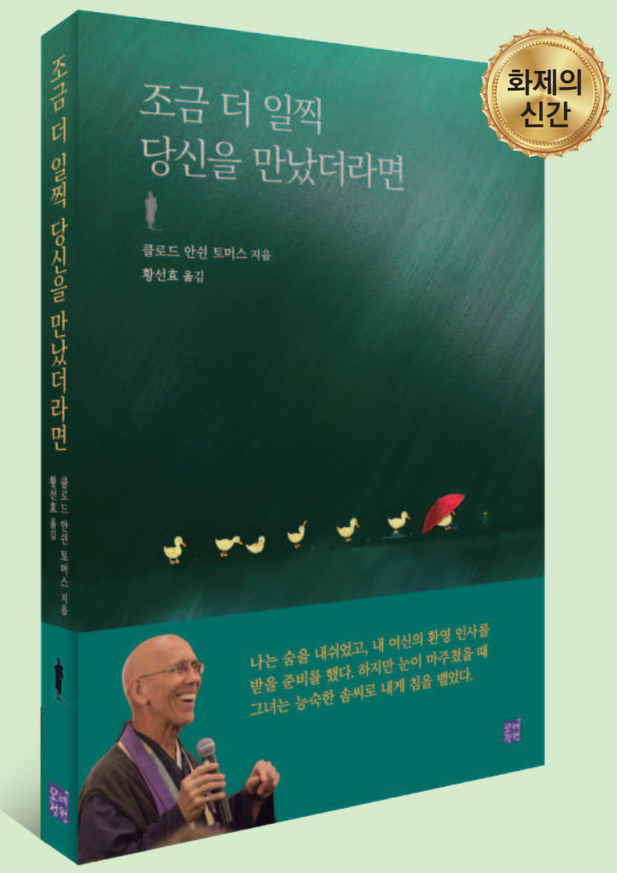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화제의 신간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